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5
4	讲义	59
5	퀴즈	80
6	토론	84
7	자료	86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한국 수산업 발전사>는 한국의 수산업과 발달과정을 어업법 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교과목이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에서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소유권 형성과 그 실태, 그리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 시사점을 학습할 수 있다.

### 02

#### 학습목표

- (1) 조선시대부터 식민지기까지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 이행되는 역사적 과정을 학습한다.
- (2) 근대적 어업권 제도 도입 이후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식민지기수산업의 실태를 어업권 통계를 통해 학습한다.
- (3)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국 수산업의 발전 단계를 학습한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의를 통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유재인 전통적 어업권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한말과 식민지기를 거쳐 구래의 어업권이 현대의 수산업법의 형태로의 이행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사료를 통해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조선의 전통적 어업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어업권의 종류, 취득, 처분 등 어업권 통계로부터 당시 식민지기의 어업의 현황에 대해 실태적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서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 04

### 주차별 구성

1주차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
2주차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
3주차	한말(韓末)의 수산업과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
4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전통적 질서의 변화
5주차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변동
6주차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5

주차

## 근대적 어업법의 도입과 어업권의 소유변동

### 5-1

### 관보와 어업권원부의 수록 형식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수산업 발전사> 강의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섯 번째 강의로 한말에서 식민지기에 이르는 근대적 어업법의 형성 결과를 어업권 통계로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대적 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의 발급과 처분에 따른 소유변동 양상을 어업권 통계자료를 통해 고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는 일찍부터 토지대장을 활용하여 토지 소유 및 소유권의 이전양상 등을 주제로 장단기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토지대장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세(田稅) 부과와 동시에 소유권 증명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주로 식민지기 토지소유구조 분석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어업에서 농업의 토지대장에 대응되는 자료는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입니다. 어업권원부는 면허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인 어업권의 공시(公示)를 위한 공부(公簿)입니다.

법적으로 어업권은 물건(物權)으로서 토지 규정의 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 권리관계의 공적 대장이 바로 어업권원부인 것입니다. 어업권원부는 그 도입부터 현재까지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각 시, 군, 구청, 동, 읍, 면사무소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업권 제도 시행 초기 근거법인 「어업령」에는 어업권에 물건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물권'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물건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어업권에 대해 등기의 대체적 형태로 『관보(官報)』의 '어업관련 처분사항'란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관보의 어업권 관련 행정 정보를 추출하여 어업권의 발급, 처분, 소유변동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이용자요인 『관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입니다. 현재도 관보는 발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관보』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설치와 동시에 발행되어 1945년 8월30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 발행된 관보는 총 10,440호로 면수는 140,515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또한 『관보』는 동일한 제명을 가지고 가장 오래도록 발행한 자료로서 식민지 정책의 활동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당시의 법령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어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자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관보』에 수록된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민지기 초 면허어업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관보』에는 화면과 같이 어장도, 어장면적 등 어장의 시각적 정보를 제외한 어업권에 대한 모든 자료, 어업종류, 소유권자, 주소, 어장 소재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 자료의 활용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수행된 소유권 정비 과정과 소유 계층 분석 등이 어업 부문에서도 가능하게 되었고, 저는 이를 '식민지기 어업권의 소유 형태와 특질: 『관보』어업권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해당 논문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보』는 발행 초부터 면허어업권에 대한 정보가 일관되게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업권 관련 정보는 1914년에 이르러서야 『관보』의 어업 부문에 면허어업처분사항 등 면허어업과 관련된 정보가 연속적으로 수록되었으며, 어업권에 대한 물권적 법 규정이 완비된 1930년 4월 말까지 수록을 지속하였습니다. 동 자료가 현대의 어업권원부를 요약하여 수록한 정보인데, 이번 강의에서 주요하게 활용한 데이터입니다.

『관보』에 수록된 세부적인 면허어업처분사항을 분석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사료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면허어업에 대한 『관보』 수록 형식은 크게 두 가지 자료로 분류됩니다.

화면의 1914년 1월 28일자 『관보』 신규면허 사항은 어업면허를 신규면허할 때 수록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은 면허번호, 어업종류, 어업 및 어구의 명칭, 어장위치, 채포물 또는 양식물 종류, 어업시기, 어업존속기간, 제한 또는 조건, 면허년월일, 어업권자의 주소와 성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1914년 8월 25일자 『관보』 어업권 포기계출은 어업면허 취득 이후의 행정절차의 대표적 형식입니다. 정부가 어업권에 대해 어업권포기, 소멸, 갱신, 취소, 양도, 이전 등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기재 형식입니다. 그 내용은 면허번호, 어업종류, 어업 및 어구명칭, 어장위치, 어업권자, 적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적요 부문에는 어업권과 관련한 구체적 행정처분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1914년 1월 28일자 『관보』 신규면허 사항은 1914년 1월 28일자 『관보』에 수록된 어업권 면허 신규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규로 발급된 면허어업은 제4933호로, 면허종류는 제2종 조류양식업(藻類養殖業)으로 어장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마전면 염막동 마도 지선입니다.

참고로 제2종 면허어업은 주로 어류, 패류, 해조류의 양식어업이 속해있는 면허입니다. 『관보』 신규면허 사항의 면허어업 제4933호는 주요 채포물은 김[海苔]으로 어업 시기는 당해년 9월부터 익년 4월까지입니다. 면허일은 1914년 1월 15일로 『관보』 수록일인 1월 28일로부터 약 2주 전입니다. 즉 면허처분일과 『관보』수록일 간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시차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업권자의 주소는 경상남도 하동군 마전면 라입동(囉唎洞)입니다. 어업권자는 박경필 외 3명, 대표자는 김수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 어장의 대략적인 위치는 물론 어업권자와 어장의 주소가 같은 면에 소재하며, 어업권자는 어장 근방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 소유 유형은 어업자 4인이 공동 소유한 형태로 확인됩니다.

화면의 1914년 1월 28일자 『관보』신규면허 사항에서 제4933호에 좌측으로 병렬된 어업권은 제4934호로 제4933호와 마찬가지로 제2종 면허어업으로 어업 및 어구 명칭은 조류양식업입니다. 어장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마전면 염막동 소마도 지선으로 어업권 제4933호 인근에 제4934호 어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하변준길(河邊樽吉) 외 9명으로 어업권의 대표자는 박우길(泊友吉)입니다. 하변준길의 성인 하변은 대체로 카와베 또는 코베로 읽혀지는 것으로 확인되나, 자료상 문자로 이름이 남아 있어 표음은 한문의 음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북강현 사도군 가포리 촌대자 암본 159번지로 일본의 후쿠오카를 주소지로 하는 일본인입니다. 자료에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재지와 한자 성명을 통해 일본인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4933호와 제4934호 어업권은 같은 면에서 동일 채포물인 해태(海苔)를 양식하는 어업으로 여러 명이 어업권을 공유하는 공동어업이나, 대표자 국적은 각각 조선인과 일본인이며, 어업존속기간은 제4933호가 10년, 제4934호는 5년으로 동일한 성격의 어업권에 대해 부여된 권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어업자가 더 긴 면허 기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업권 면허 기간은 「어업령」 제6조에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조선총독이 정한다. 다만,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로 최대 10년 부과 이후 연장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어업령시행규칙 제22조에는 “어업권 존속기간 갱신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갱신기간을 정하고 면허장을 첨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3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동령에 권리 기간 부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정 원칙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1914년 8월 25일자 『관보』 어업권 포기계출은 기존에 부여된 어업권 내용이 어업면허 부여 이후 변경된 사항을 수록한 사례입니다. 『관보』 수록 날짜는 1914년 8월 25일이며, 어업권 포기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어업 제212호는 제4종 면허어업으로 온분기망(鰯焚寄網) 어업권입니다. 여기서 제4종 면허어업은 주로, 일정 수면에서 일정 어업기간 반복하여 어망을 건설 또는 부설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주로 어군을 형성하여 회유하는 조기, 정어리 어군의 경로를 따라 어망을 설치하여 어획하는 어구어법입니다.

여기서 온(鰯)은 정어리, 분기망의 분(焚)은 불사르다, 태우다의 뜻으로, 분기망은 빛에 자극되는 주광성(走光性)과 빛을 좋아하는 희명성(喜明性)을 이용, 햇빛을 밝혀 고기를 유인하는 어법입니다. 어업권의 어장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군 남면 소면도입니다. 어업권 처분의 주요 내용은 어업권자 산구현풍포군한해어업단(山口縣豐浦郡韓海漁業團) 즉 야마구치현 기반 어업단체가 1914년 5월 20일자로 어업권 포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화면의 면허어업과 기타 어업처분사항 수록 내용 비교표는 신규면허어업과 기타 어업처분사항 수록 내용을 비교한 것인데, 신규면허에 대한 정보인 1914년 1월 28일자 『관보』 신규면허 사항에 비해 1914년 8월 25일자 『관보』 어업권 포기계출은 제한적인 정보가 수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번호, 어업종류, 어업 및 어구명칭, 어장위치 등은 신규면허와 어업처분사항 양측에 공통적이거나, 채포물, 어업존속기간, 제한조건, 면허년일, 어업권자, 어업권자 주소 등은 어업처분사항에는 수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처분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요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업권의 처분내역, 행정처분일 등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보와 어업권원부의 수록 형식을 사례로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업권원부의 수록된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어업권의 통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2 어업권 처분사항과 어업권의 통계

지난 시간에는 관보와 어업권원부의 수록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보의 어업권 처분사항을 수집하여 도출된 어업권 통계를 소개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어업 처분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보』에 수록된 면허어업처분사항은 「어업령」과 「어업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면허어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사항을 게재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화면의 <면허어업 처분사항과 주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면허어업처분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허의 신규, 갱신, 만료 등 어업권 발급과 소멸 관련, 둘째 양도, 공유, 대부, 저당권설정, 상속 등 어업권의 재산권 변동 관련, 셋째 대표 변경, 면허사항 변경, 면허장 정정, 착수연기, 휴업 등 면허 내용 변경 등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첫째 어업권 발급과 소멸에는 어업권이 신규로 발급되는 것과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스스로 포기의사를 표명하거나, 어업권자가 사망시 승계자가 없어 권리가 자연 소멸되는 사항, 어업령 제10조와 제11조에 의거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어업령 제10조는 어업령에 의해 부여된 어업권이 수산동식물 보호, 군사상, 공익상의 목적의 실현 또는 어업세 체납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어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제11조는 행정적 착오 및 불성실한 어업 영위 등을 사유로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어촌경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와 같이 어업권의 승계 및 양도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 양도, 상속, 공유, 대부, 저당, 전대, 이전 등이 있습니다.





어업권은 「어업령」 제8조에 의해 “어업권은 상속·양도·공유·저당 또는 대부의 경우에 한하여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통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어업령」 시기까지는 통독부의 통제하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완전한 물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 조항을 근거로 어업권에 토지와 유사한 형태의 양도, 대부, 상속 등의 재산권적 법률관계 성립하여 어업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업령이 개정된 1929년 「조선어업령」 제15조에서 “어업권은 물건으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명시되면서 어업권의 물건적 특성이 법으로 확정되었고, 1930년 「조선어업령」이 5월 1일 전격 시행되면서 이후부터는 관보에 면허어업처분사항에 대한 수록은 중단되게 됩니다.

어업권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 중 양도, 상속, 공유, 대부, 저당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용어로 생각되어 추가적 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업권의 이전은 어업세가 체납될 경우 어업권의 취소 대신 경락인에게 공매처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어업권 대표자 선정과 변경에 관한 것도 기재되어 있는데, 「어업령시행규칙」 제7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보』에는 면허장에 대한 면허사항 변경, 정정, 재교부, 착수기간 연장, 휴업 등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업령시행규칙」에는 10조 이후 5개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어업령시행규칙」 제10조는 면허사항 즉 어업의 종류 및 명칭, 어장의 위치 및 구역, 채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등이 변경될 경우, 제13조는 어업권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정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어업착수 연기, 휴업에 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면허장 망실 시 재교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위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관보』에 수록된 어업권원부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분석 시기를 제도 도입 초기인 1909년~1921년으로 하였습니다. 1909년은 「어업법」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이고, 1921년은 어업법을 계승한 「어업령」의 시행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어업령」에서 규정된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어업령」1년차에 발급된 어업권은 1921년에 반드시 그 권리가 갱신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은 기존에 면허된 어업권의 생애가 일차적으로 완료되는 시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시행된 1909년~1921년의 약 13년간은 한국에서 초기 어업권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는 시기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관보』에는 1909년~1913년의 5개년간의 발급된 약 4,900건의 면허어업권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1914년 이후 발급한 면허어업권 관련 행정처분 내용으로부터 확보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보』에 어업면허 처분사항이 최초로 수록된 것은 1914년으로 어업권 제4903호입니다. 어업권은 순차적으로 면허번호가 부여되었는데, 이로부터 관보에 어업면허 처분사항이 수록되지 않은 1909년에서 1913년 말까지 약 4,900건의 면허가 발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909년~1913년간 발급된 약 4,900건의 어업권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누락된 어업권에 대한 정보는 기발급된 어업면허 변동 등 처분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보에 기존에 발급된 면허사항과 더불어 변동된 사항이 적요 부분에 수록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복원 과정을 거쳤습니다.

1914년 8월 25일자 『관보』 어업권 포기계출에서 확인되듯이 면허어업처분사항에는 신규뿐만 아니라 이전에 교부된 어업권에 대한 권리의 소멸, 갱신, 양도, 대표자 변경 등 후속 행정조치 사항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909년~1913년간에 발급된 어업권의 정보 공백기를 채우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1909년~1913년간 발급된 면허어업권은 반드시 10년 안에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소멸과 갱신에 대한 정보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진 시기 『관보』에 수록되게 됩니다. 다만, 1909년~1913년간 발급된 어업권이 이 시기에 권리 포기나 만료로 소멸될 경우 해당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 파악되지 못한 어업권은 약 600건 정도로, 1909년~1921년간 발급된 총 어업권의 자료 복원율은 87.8%입니다.

그리고 1909년~1913년간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업권이 1914년~1921년간 공유, 이전, 대부, 양도 등 여러 차례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가장 앞선 기재건을 우선순위로 하여 자료를 복원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관보』를 통해 확보된 각 어업권에 대한 정보는 8,961건입니다. 1913년 말 이전 부여된 어업권 약 4,900건 가운데 필자가 복원한 4,299건과 1914년~1921년간 관보에 정기적으로 수록된 어업권 발급 정보 4,662건입니다.

화면의 1914년~1921년간 『관보』수록 면허어업 처분사항 통계표는 1909년~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어업권 정보를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행정처분일과 관보수록일간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1915년 1월 관보에 수록된 사항이 실제로는 1914년 12월에 행정처분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원자료인 행정처분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14년~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면허어업 기사는 총 11,96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8년간 연평균 1,496건의 면허어업과 관련된 기사가 『관보』에 실렸습니다. 1914년 1,637건을 시작으로 어업권 제도 시행 10년차인 1918년 최대 2,304건의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면허어업기사 11,967건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어업권의 발급과 소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총 7,632건, 전체 기사의 63.8%를 점유합니다. 이 가운데 어업권의 신규면허와 관련된 건이 4,662건, 어업권 포기, 어업권자의 사망, 어업권 취소,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어업권이 소멸한 건은 2,334건입니다. 그리고 어업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어업권의 효력이 연장된 것은 636건입니다. 즉 권리 기간이 연장된 것보다 소멸한 어업권이 약 3.7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 승계 및 양도 등 어업권의 재산권적 변동이 있었던 가사는 2,767건으로 전체의 약 23.1%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어업권의 양도가 1,66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내용 가운데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등 행정적 처분은 1,568건으로 약 13.1%로 나타납니다.

즉 『관보』의 면허처분사항을 검토한 결과, 당시 어업권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일은 역시 면허의 발급과 소멸에 관한 부문임이 확인됩니다. 특히 1914년~1921년의 8년간 신규 어업권의 발급이 4,662건에 달하는 것은 당시 한반도 어장 개발, 즉 어장의 절대 면적 확장과 이에 따른 어장 면허 확대라는 당시의 정황이 동시에 반영된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기간 소멸한 어업권은 2,334건으로 생성된 어업권의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어업권 양도도 1,668건으로 소멸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이에 어장의 권리 소멸이 양도보다 빈번한 것은, 토지와 구분되는, 즉 특정 바다와 특정 어구를 통해 어장이 창설되는 어장 소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인 토지는 그 범위가 유한하므로 확장이 제한적입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토지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은 1918년 4,421천 정보(町步)로, 이 가운데 논과 밭의 면적은 합계 4,254천 정보(町步)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토지면적은 4,567천 정보(町步), 논과 밭의 면적은 4,388천 정보(町步)로 25년간 토지면적은 146정보(町步), 논과 밭의 면적은 134정보(町步)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토지는 생산수단의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으로서 보유 가치가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소유권자가 스스로 포기하여 해당 권리가 소멸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토지소유권 처분은 주로 양도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식민지기 토지소유권 이전기록을 당시 농촌 경제를 파악하는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소유면적별 토지소유자의 증감으로부터 당시 농민이 처한 경제 상황을 유추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많아지면 1인당 토지소유 규모는 영세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면허어업 처분사항 통계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어장의 경우,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동기간 양도거래보다 더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장은 어구, 어선 등 생산수단과 결합할 때 재산적 가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장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고, 넓은 바다에 위치한 어장의 자원 함유량과 경제적 가치는 인간이 가시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변화와 이전 년도 어기(漁期)의 어획강도에 따라 수산 자원량의 갱신률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의 변동성이 심하여 어장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어업권 소멸에 대한 기록은 어업권의 신규 발급, 양도 처분과 더불어 당시 어업경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허어업의 소유변동과 관련한 강의인 5-4 소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보의 어업권의 처분사항을 정보를 수집하고, 어업권 발생·소멸, 어업권 소유변동, 기타로 구분한 어업권의 통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허어업의 소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3 면허어업권의 소유 유형

지난 시간에는 관보의 어업권의 통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어업의 소유 유형이라는 주제로 식민지기 어장 소유의 특징과 변동 양상을 어업권의 신규, 소멸, 이전이라는 세 가지 이슈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보』 어업권 면허 사항에서 어업권자의 정보만을 따로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면허어업권의 소유 유형입니다. 우선 어업권의 신규 취득 시점 기준 소유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업권은 어장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를 인정하는 물건이지만, 그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소유 유형은 당시 공유재인 수산자원에 대한 당시의 이용 관행과 어장 소유의 지배 체제를 설명해줍니다. 예를 들면, 어업권의 소유형태가 공유, 총유, 단독소유 중 어느 것에 가까웠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어업령」하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자의 소유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1인이 단독으로 어업권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어업권자는 곧 대표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법적으로 소유 주체가 2인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어업령시행규칙」제7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고 또는 면허출원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보』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어업권이 여러명으로 공유될 경우 공유자와 대표자를 병기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1월 28일자 『관보』신규면허 사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면허어업 제4933호는 어업권자가 박경필 외 3명, 대표자 김수홍으로 총 4명이 공동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단체의 소유는 다시 동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어업자들 또는 어업조합과 장기현원양어업단(나가사키현원양어업단) 등 일본인 이주어업자단체, '부산수산주식회사' 등 회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리지역의 경우 '해창(海倉), 목화정(木化亭), 도리(道里) 촌(村), 장사(長砂), 각리 어업자'와 같이 특정인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면허어업 제5569호와 같이 어업권자가 '각리 채조업자, 대표자 고병구'로 대표자가 명시된 사례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이며 일반적인 기재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동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자나 어업조합이 어업권자인 경우, 그 어업권의 소유 유형은 총유(總有)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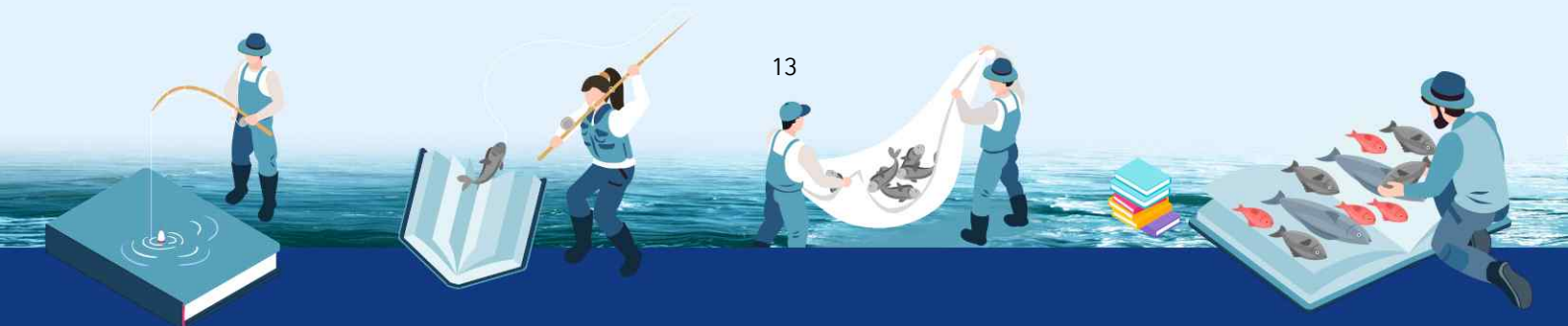
여기서 생소한 용어인 총유(總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총유는 법적 용어입니다. 민법상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은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가 있습니다.

총유(總有)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소유한 것으로, 대상물의 관련 관리, 처분 등의 권능은 공동체에 속하고, 지분은 구성원 전체에게 속하나, 구성원의 지분권 처분이 봉쇄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현대의 마을 어촌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촌계원들이 어촌계라는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 되어 있고, 목적물 즉 마을 어장의 관리 처분은 어촌계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단체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에서 총유물에 대해 사용·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입니다. 무엇보다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분할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합유(合有)는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을 꼽을 수 있는데, 소유권이 다수인에게 나누어 속하게 되는 점은 공유와 같으나, 지분이 공동목적물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유지분과는 다릅니다. 즉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입니다. 공유(共有)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구성원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1909년~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어업권을 전술한 소유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가 보이는 표입니다. 가장 위의 라인은 어업권의 소유 유형으로 1인, 공동, 단체로 구분됩니다. 1인은 단독소유, 공동은 지분이 여러명으로 분할된 공동소유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단체는 지역 기반의 총유, 일본인 이주어업자 단체의 소유, 주식회사 형태로 구분됩니다.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소유 형태는 총유, 합유, 공유 모두 가능하나, 여기서는 이주어업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어업권 제도 시행 초기인 1909년~1921년간 발급된 어업권 8,961건 가운데 1인 단독 소유가 5,304건으로 59.2%, 2인 이상의 공동소유는 1,660건 18.5%, 나머지 단체에 부여된 것이 1,997건 22.2%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자료의 수집방식은 복원자료와 정기수록자료 여부에 따라 1909년~1913년간과 1914년~1921년 간으로 구분되는데, 1909년~1913년간 발급된 어업권 중 복원된 어업권 4,299건 가운데 1인 단독 소유가 2,501건으로 58.2%, 2인 이상의 공동소유는 706건 16.4%, 나머지 단체에 부여된 것이 1,092건 25.4%로 집계됩니다.

1914년~1921년간 발급된 어업권 4,662건 가운데 1인 단독 소유가 2,803건으로 60.2%, 2인 이상의 공동소유는 954건 20.5%, 나머지 단체에 부여된 것이 905건 19.4%로 집계됩니다. 1909년~1913년간과 1914년~1921년간 1인소유와 공동소유의 경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이는 초기 7.3%에 달하는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단체소유권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1914~1921년간 지역 기반 총유는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초기 부여된 어업권은 단독 소유 면허가 절반 이상으로 어업권의 1인 소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도 18.5%에 달하고 있는데, 공동소유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루었던 조선 시대 어장매매문기의 지분 매매 사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업권 제도 도입 초기 어업권자 가운데 1인과 특정 소수의 공동소유 비중이 77.7%로 높은 수준인 것은, 특정 어장이나 어구에 대한 권리가 구래부터 주로 1인과 특정 소수가 소유를 독점하여 운영되어 온 가운데, 식민지기 어장 소유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 수준에 불과하지만, 식민지기 총유 형태의 어업권이 실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총유는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이행하면서 일부 어장을 대상으로 강제화한 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09년~1912년은 강제조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기로, 이 기간 지역어업자 총유의 실재는 전통적 어촌사회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09년~1921년간 일본인 이주어업자단체가 취득한 어업권은 326건으로 전체어업권의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어업권 제도 도입 초기인 1909년~1913년간 단체가 취득한 면허어업이 1,092건이며, 이 중 일본인 이주어업단체가 취득한 것이 313건으로 이 기간에 부여된 전체 어업권 중 7.3%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4년~1921년간에 발급된 일본인 이주어업단체의 신규 면허는 13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비교적 앞선 시기에 속하는 1914년~1916년에 부여된 것입니다. 즉 어업권 제도 시행 초기 일본인 이주어업의 비중이 상당했으며, 어업권 제도의 정착에 이들이 일정 부문 기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908년 이미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이주어업자는 1,146호 4,820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할수록 전체 어업권 가운데 일본인 이주어업자단체의 어업권 소유 비중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본인 이주어업자는 1907년~1911년까지는 급성장 추세였으나, 1912년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1915년~1921년간은 정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1910년대 후반에는 어업 경영에 유리한 어촌을 중심으로 이주어업자가 집적하는, 즉 정착 성공어촌을 중심으로 이주어업자들이 재편성되는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대표적 정착 성공지는 울산 방어진, 부산 대변, 영도, 통영이었습니다. 1911년 방어진의 일본인 이주어업자 인구는 285명에 불과하였는데, 1921년에는 3,073명으로 증가하였고, 영도는 910명에서 4,214명으로, 대변은 56명에서 114명으로, 통영 입좌촌인 지금의 장승포 이리사촌은 400명에서 69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입좌촌이 소재한 통영 인구는 1921년에는 2,282명에 달했습니다.

실례로 후에 일본 굴지의 수산재벌로 성장한 하야시카네소텐[林兼商店]의 경영자이자 조선수산업계의 중심인물이었던 나카베 이쿠지로[中部幾次郎]가 1915년 본사를 나로도에서 일본인 수산업자가 밀집한 동해 방어진으로 거점을 옮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이주어업자단체에 대한 어업권 발급의 감소가 곧 일본인 어업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주어촌을 중심으로 집단적 형태로 발달하던 일본인 어업자는 이후 개인, 공동소유 형태로 혹은 어업조합을 결성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1920년 이후 어업조합을 중심으로 한 어업권 소유 재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어업권 소유변동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면허어업권자의 조선·일본인 간 비중은 어떠한 양상이었을까요? 이는 초기 어업권의 주도적 소유 주체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단서입니다. 1인 어업권자와 공동어업권 대표자의 국적 비교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914년 1월 28일자 『관보』신규면허 사항에서, 면허어업 제4933호는 어업권자가 박경필 외 3명, 대표자 김수홍으로 총 4명이 공동소유하는 형태이며, 대표자는 조선인입니다. 이와 같이 어업권의 국적 정보를 어업권자의 성명으로부터 추출하여 정리한 결과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909년~1921년간 1인 단독 소유 5,304건의 면허어업권은 조선인이 3,765건 71%, 일본인이 1,539건 29%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909년~1921년간 공동소유 형태로 취득한 1,659건의 어업권 가운데, 조선인을 대표자로 하는 어업권은 1,173건으로 70.7%, 일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어업권은 475건 28.6%로 도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 및 공동소유 어업권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 7대 3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기존에 일본에서 1901년 제정·공포된 「구어업법」하에서 어업권 제도를 선행한 일본인 이주어업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어업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권 제도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당시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의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어업조합규약례를 작성하고, 계몽적이고 관주도적인 어업조합의 설립과 그 규약의 제정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 즉 3월에 달하는 일본인 어업권자의 높은 비중은 식민지기 일본인 어업자에 의한 어자원 수탈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11년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호의 수는 87,869호로, 이 가운데 일본인은 4,339호, 조선인은 83,530호로 일본인의 비중은 4.94%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인 어업자 호수 대비 일본인 소유 어업권의 비중이 높은 실태는 1921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대적 어획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인 이주어업자의 식민지 조선 어장개척 및 침투가 활발하였음을 대변하는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표는 당해 말 기준 권리가 실재 유효한 어업권을 '유효 어업권'으로 정의하고, 1913년~1921년간 연차별 유효 어업권을 소유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어업권은 권리가 신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적권리가 기한 만료, 포기, 사망 소멸, 취소 등 여러 요건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시는 면허어업 처분사항과 주요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화면의 표에서, 어업권은 1921년까지 약 9,600여 건이 발급되었는데, 1914년~1921년간 실질적으로 법적 권리가 유효한 어업권은 1913년 말 4,298건에서 1921년 말 6,617건으로 확인됩니다. 실효 어업권은 연평균 5.5%의 성장률로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소유 주체로 나누어 보면, 법적 권리가 유효한 어업권의 경우 1913년~1921년간 1인 소유 어업권은 1913년 말 2,500건에서 1921년 말 3,774건으로, 공동소유 어업권은 1913년 말 706건에서 1921년 말 1,136건으로, 지역 기반 어업자가 소유한 어업권은 1913년 말 604건에서 1921년 말 1,596건으로 확인됩니다.

1인소유 어업권은 연평균 5.3%, 공동소유는 연평균 6.1%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어업자가 소유한 어업권은 연평균 12.9%로 소유 유형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어업권의 소유변동에서 어업자단체 혹은 어업조합의 소유가 증가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한편 일본인 이주어업자단체 및 회사가 소유한 어업권은 각각 1913년 말 313건에서 1921년 말 49건으로, 1913년 말 175건에서 1921년 말 62건으로 연평균 -20.7%, -12.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유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1913년 말에는 1인 소유 어업권이 2,500건으로 전체 4,298건 가운데 58.2%를 점유하였고, 1921년 말에는 3,774건으로 전체 6,617건 가운데 57%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1인 소유 어업권 비중은 1913년~1921년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소유 비중도 마찬가지로 1913년 말에 706건으로 16.4%, 1921년에는 1,136건 17.2% 점유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기반어업자 혹은 어업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는 1913년 604건 14.1%에서 1921년 1,596건 24.1%로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인 이주어업자단체와 주식회사는 1921년 각각 0.7%, 0.9%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아닌 공유 등 어업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변동되고 있었다 하겠습니니다.

요컨대 식민지기 어업권은 연평균 5.5%의 성장률로 확장단계에 있었으며, 1인 단독 소유, 공동소유, 공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일물일권의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정착되면서 논과 밭의 경우 개인에게 그 소유가 집중되는 구조였으나, 어장의 경우 1인 독점적 소유가 50% 이상을 점유하되,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16.4%~17.2%, 공유도 14.1%~24.1%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래부터 진행되어온 어장 사점과 어촌공동체가 마을 앞 어장을 공동소유 및 이용·관리하는 어업 관행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식민지기 일본인의 어장 소유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관보의 어업권 통계수치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어업의 소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허어업의 소유변동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5-4 면허어업의 소유변동 실태와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시행과 특징

지난 시간에는 면허어업의 소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어업의 소유변동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난 소유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은 법적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업권의 소유권 변동은 양도, 강제 이전, 공유 분할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첫째, 양도는 어업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업권은 지분 분할 공유가 가능하므로 양도는 어업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모두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 강제조치로서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업령」제10조 2항에 의해 총독부는 어업권자가 소정 기간 내에 어업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어업권이 그대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매낙찰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어업권의 분할 소유, 즉 공유에 의한 소유변동이 있습니다. 어업권은 여러 명 지분 공유가 가능하므로 공유권자 간의 지분양도와 지분 포기에 의해서도 소유권자가 변동됩니다. 그리고 지분 분할에 의한 새로운 공유자 생성 역시 어업권의 소유변동을 가져옵니다.

보시는 표는 어업권의 소유변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입니다. 어업권 소유변동은 1914년~1921년간 총 1,755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간 160건~220건 내외의 일반적인 소유변동이 발생한 가운데, 1920년에 405건으로 많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표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은 첫째, 어업권의 소유변동시 매수자가 타인 또는 기존의 지분공유자인가, 둘째, 양도대상을 어업권 전체 또는 일부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권이 신규 분할되거나 어업세 체납으로 권리가 강제 이전되는 것도 구분하였습니다.







①의 유형은 어업권 전체가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어업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어업권의 소유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명에게 지분 공유되던 어업권이 1인 개인에게 양도될 경우는 1인 소유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1인 개인 소유어업권을 다시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는 소유 유형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어업권 전체가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례는 1914년~1921년간 1,514건으로 어업권 소유변동의 86%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에 해당하는 것은 어업권이 이미 특정 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어업권의 지분(持分)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어업권의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의 변동이 발생하지만, 어업권의 소유 유형이 '공유'라는 점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업권의 지분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례는 1914년~1921년간 39건에 불과하며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권이 공유자 간 양도, 포기 등에 의해 소유 현황이 변동되는 것이 표의 ③에 해당됩니다. ③에 해당하는 사례는 공유자가 본인의 지분을 양도, 포기, 혹은 사망 소멸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어업권이 집중되어, 어업권의 소유 유형이 공유에서 1인 소유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이를 지분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업권이 공유에서 1인 소유로 지분이 집중된 것은 1914년~1921년간 8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공동소유자가 양도한 것이 58건, 지분을 포기한 것이 23건입니다. ④는 ③과 마찬가지로 공유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 포기하였으나 ②와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구성원이 변경될 뿐, 소유 유형이 '공유'라는 점은 변동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1914년~1921년간 67건으로 지분의 이동은 일부에 국한된 사례로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어업권은 공유 허가를 통해 타인에게 새로이 분할되기도 하는데, 표의 ⑤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914년~1921년간 4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개인 단독 소유였던 어업권이 타인과 공유된 것은 29건, 원래 공동소유인 어업권에 공유자가 추가된 것이 11건, 일본인 이주어업단체가 소유하던 어업권에 공유자가 추가된 것이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세 체납으로 공매처분 후 매각되어 '이전'된 것은 1914년~1921년간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표는 1914년~1921년간 어업권 소유 형태가 양도, 이전, 공유지분 분할합수 등에 의해 변동된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어업권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에 따라 소유 유형이 공동소유, 1인 단독소유, 회사소유 등의 형태로 바뀌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동리의 어업자들이 취득한 어업권, 즉 어업자가 총유하는 어업권이 이후에 어업조합에 양도되어 실질적인 소유 주체는 바뀌지 않은 채, 법적 소유명칭만 변동되는 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는 1914년~1921년간 어업권 소유주체의 변동 실태를 어업권 발급 시점을 기점으로 소유형태가 변동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발급기점의 소유형태이고,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소유변동의 결과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98건의 어업권은 발급 시점의 어업권이 여러명의 어업권자들로 분할하여 공유하는 형태였는데, 이후 일부 어업권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자의 구성은 변동되었으나, 여전히 소유의 형태는 공유인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250건은 마찬가지로 어업권 발급 시점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였던 어업권인데, 이후 어업권이 1인이 단독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한 어업권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데 있어, 그 양도 대상자가 제3자가 아닌 공유자 중 1인 경우로, 다시 말해 어업권의 공유지분이 1인에게 통합된 지분의 집중 사례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여러명이 공유하던 어업권 전체가 타인 1인에게 일괄 양도되어 결과적으로 1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에 나타나듯이 면허어업권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소유변동이 발생한 사례는 1914년~1921년간 1,755건입니다. 이 가운데 발급 시 1인 소유였던 어업권의 소유주체가 변동된 것이 전체 1,007건 57.4%이며, 공동소유어업권이 변동된 것이 393건 22.4%, 지역어업자 총유어업권이 변동된 것이 162건 9.2%, 일본인이주어업자 단체 소유어업권이 변동된 것이 96건 5.5%, 회사소유 어업권이 변동된 것이 97건 5.5%입니다.

항목별로는 기존의 1인 소유어업권이 다시 개인에게 양도된 것이 652건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공동소유 어업권이 1인에게 단독으로 양도된 것이 250건 14.2%, 1인 소유어업권이 조합소유로 변동된 것이 212건 12.1%, 동리지역기반 어업자의 총유어업권이 어업조합에 양도된 것이 156건 8.9%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914년~1921년간 양도 등 면허어업권 소유변동에 의해 1인 단독소유가 1,007건에서 985건으로, 공동소유가 393건에서 248건으로 감소한 반면, 어업자단체 소유는 258건에서 41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요약됩니다. 회사소유 역시 97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의 발급 시점의 면허어업의 어업권자 소유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어업권자 소유 유형 중 1인, 지분 공유가 1909-1921년간 77.7%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해당 어업권에 비례적으로 양도거래 및 소유변동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소유 유형 중 조합·어업자로 변동된 415건 23.6%으로, 즉 지역의 동리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어업자가 총유하고 있었던 면허어업권이 조합소유의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1914년~1921년간 소유변동에 의해 조합이 소유하게 된 면허어업권 현황을 지역별, 조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분석 대상 기간 중 어업권자가 조합·어업자로 변동된 것은 총 415건입니다. 이 가운데 409건은 조합으로, 6건은 지역어업자들로 변동되었습니다.

어업조합으로 양도된 409건의 어업권은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11곳, 전라남도 7곳, 평안북도 6곳, 함경북도 5곳,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1곳 등으로 전국에 산재한 어업조합으로 어업권의 소유 이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업조합으로 양도된 어업권 규모는 경상남도 288건, 경상북도 37건, 평안북도 30건, 전라남도 25건, 함경북도 15건이며 그 외 지역은 10건 미만입니다. 대체로 경상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조합 중 광도온망(廣島鰻網)어업조합, 송진(松眞)어업조합, 거문도(巨文島)어업조합 등은 기존에 일본인 어업자가 소유하였던 어업권을 양도받은 어업조합으로 일본인 주도의 어업조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업조합으로 양도된 409건의 어업권에는 기존에 1인 단독소유 면허가 조합으로 양도된 21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3건은 일본인 개인이 소유하다가 경남 통영에 소재한 광도온망어업조합(廣島鰻網漁業組合)에 양도한 제3종 면허어업권입니다. 표에서 조합으로 양도된 어업권이 급증한 것도 광도온망어업조합의 결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1인 단독소유자가 어업조합에 양도한 것은 9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1인 단독 소유어업권이 조합소유로 변동된 사례는 대체로 조선인으로 구성된 어업조합 결성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었고, 일본인 어업자에 의한 것으로 원래부터 일본인이주어업자들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외의 사례들은 기존에 어업자들이 공유, 총유하고 있는 어업권이 어업조합으로 양도된 것으로, 어업조합은 소규모이지만 전국적으로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난 소유의 특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는 어업권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인정하고, 법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조선 시대부터 특정 소수에게 선점된 어장 소유는 어업권제도하에서도 그 연속성이 보장,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양반, 아문 등의 어촌사회 지배하에서, 소유와는 별개로 관습적으로 자원 관리의 개념에서 총유되어 온 마을 공동의 채조, 포패 어장은, 상부의 실력 지배 소유를 부정하고 마을 구성원의 총유만을 인정하여 지역 기반 어업자들이 새로운 소유 주체로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어업권의 사적 소유권을 법으로 침해할 수 없었으나, 총유의 대상이 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기 어업권 발급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으며, 특히 총유 형태 어업권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유어업권 주체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 어업자들과 일본인 이주어업자가 결성한 어업조합이 양대 축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강의는 식민지기 어업권의 발급과 소멸, 소유변동의 이력을 담고 있는 『관보』의 면허어업처분사항으로부터 「어업법」과 「어업령」도입 초기 어업권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기 어업권의 법적 소유권 확립과 그 실상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식민지기 어업권 처분의 주요 내용으로부터, 1인·공동·총유 등 다양한 어업권 소유 주체 확인과 어업권의 개인소유 집중 등, 조선으로부터의 연속적 특질 유지, 독립된 권리로서 어업권 확립, 총유어업권의 제도적 창출과 강화, 전통적 어촌사회와 어업조합으로 구분되는 어업권 총유의 주체 이분화, 마지막으로 어업권의 지속적 성장과 확대 양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에 대하여, 그간의 연구 공백을 채우고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어업법을 통해 본 한국 수산업의 발전사를 주제로 진행된 다섯 번의 강의를 완료되었습니다. 강의 목표인 한국에서 공유재인 수산자원에 대하여 소유권이 형성되고, 근대적 형태로 법제화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보론적 성격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로 현재의 한국 수산업에 대한 주제를 강의에 포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GDP, 생산량, 수출입 등 경제 통계로부터 한국경제에서 수산업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5**

## Introduction of Modern Fishery Law and Change in Fishing Right Ownership

**5-1**

### Registered on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Hello, students. I am Song Kyeong-eun, the instructor of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course. In this fifth lecture, I will discuss the result of the formation of the modern fishery law from the period of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until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based on fishery right statistics. In other words, I will examine the trend of changes in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following fishery right issuance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a modern fishery law, based on statistical data.

As you may well know, in agriculture, long and short-term analysis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trend of land ownership and transfer of land ownership by utilizing information in the land register. The land register was written in the process of Japan's land survey in Korea. Therefore, it is the fundamental data to understand land tax imposition and ownership verification. The data has been widely used to analyze the land ownership structure mostly during the colonial era.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is equivalent to a land register for agriculture in fisheries.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is an official book for a public announcement of fishery rights, which are the licenses from a mayor, county governor, or district head for the operation of licensed fishery businesses.





In legal terms, fishery right is a real right to which land regulations are applied in principle; as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real estate including land be publicly announced by registration, the official book for 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fisheries is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From the very introduction of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until nowadays, it has been managed dispersively at respective city hall, county office, district office, village/town/township office.

While 「Fishery Ordinance」 that was the foundational law for early implementation of fishery right had given fishery right a nature of real right, it did not clearly specified it was legally a “real right”. That is why fishery right that had not been defined as a real right was generally registered in the section of “fishery-related disposition” in 『Official Gazette』. The key point of today's lecture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issuance, disposition, and ownership of fishery rights, based on the fishery-relat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extracted from the official gazette.

First, let me explain briefly about 『Official Gazette』 that I used for today's lecture. It is a state bulletin for public announcement, which compiles and publishes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ulgate to the public. The official gazette is still published these days, providing easy access on the “E-Official Gazette of Korea” website.

『Government General Official Gazette』 began to be publish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on August 29, 1910, and was maintained until August 30, 1945. During that time period, total 10,440 issues of the official gazette with as many as 140,515 pages were published. 『Official Gazette』 is a publication that has been issued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under the same title; it clearly describes the activities of the colonial policy and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time without exception, so it is an excellent historical material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is week's lecture aims to understand the nationwide status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early times of colonial rule by utilizing the data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As shown here, 『Official Gazette』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fishery rights, including the type of fishery business, its owner, address and location of fishing grounds, except for visual information such as the map or area of fishing grounds.

Utilization of the data enabled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ownership's reorganization and the class of owners that had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before in the sector of fisheries as well and I came to publish a research paper based on this: "Form and Feature of Fishery Right Ownership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Focusing on Analysis of Information in 『Official Gazette』". Today's lecture is based on the research paper.

For your information, 『Official Gazette』 did not consistently include information about licensed fishery rights from its beginning. Information about fishery rights including dispositions on licensed fishery business began to be published continuously starting from 1914 in the fisheries section of 『Official Gazette』 until the end of April 1930 when the legal real right regulations on fishery rights were established. This shows the summary of the information about contemporary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which is the data utilized for this lecture.

Before analyzing the detailed aspects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let me first check on the form of the material. The form of information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regarding licensed fishery busines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This record about new licenses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includes the license number, type of the fishery business, name of the fishery business and fishing gears, type of the collected or cultured goods, fishing season, period of continuation of the fishery business, restriction or conditions, date of the license, address and name of the fishery owner, in the form applied for the issuance of new fishery business licenses.





This is a fishery right abandonment report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as of August 25, 1914 and it is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of an administrative procedure after acquiring a fishery business license. It is a common form applied for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regarding fishery right, including its abandonment, extinction, renewal, cancellation, transfer, transmutation, etc. The record contains license number, type of the fishery business, name of the fishery business and fishing gears, location of the fishing ground, fishery right holder, summary, etc. The summary part described detail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related to the fishery rights.

Now let me give you a detailed explanation based on the data. The record of newly-issued licenses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here is regarding new fishery right licenses announced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Simply put, it was a newly-issued fishery business license No.4933, which was type 2 seaweed culturing business and whose ground was located in the Ma-do Island in Yeommak-dong village, Hadong-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For reference, type 2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the one in which the business of culturing fish, shellfish, and seaweed is included. The primary object of the newly-issued fishery business license No.4933 as announced in 『Official Gazette』 was laver and the fishing period was from September of the year until April of the following year. The date of license was January 15, 1914, about two weeks before January 28 when the information was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So, there was a certain time difference between the date of the license's issuance and its official announcement, due to the time spent on administrative processing.





The address of the fishery right holder was Laip-dong village, Majeon-myeon township, Hadong-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There were three fishery right holders for the license and their representative was Kim Su-hong. The information clarifies an approximate location of the fishing ground,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address of the fishery right holder and the fishing ground was in the same township and they lived near the fishing ground. It also demonstrates the fact that the fishery right was co-owned by four fishery owners.

The one put on the left side to license No.4933 in the newly-issued license section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is license No.4934, which was also type 2 fishery business license whose title was seaweed culturing business. The location of the fishing ground was the Soma-do Island, Yeommak-dong village, Majeon-myeon township, Hadong-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so we can see that the fishing ground for license No.4934 was near that of license No.4933.

The license had nine fishery right holders including Habyeon Jungil(河邊樽吉) and the representative was Park Woo-gil. Surname Habyeon is generally read as Kawabe or Kobe in Japanese, but I put it in a Korean way as it is written so on the record. They are Japanese people based in Fukuoka, Japan, whose detailed address was Ambon 159, Chondae-ja, Gapo-ri village, Sado-gun county, Bokgang-hyeon prefecture. Even though the records does not clarify their nationality, they are estimated to be Japanese, based on their address and names in Chinese letters.

License No.4933 and No.4934 were both the fishery business of culturing laver and both were collective fishery business shared by multiple people; but their representative was a person of Joseon and Japan respectively and the term of the fishery business was 10 years for No.4933 and five years for No.4934, showing the fact that different terms were granted even for the same type of fishery right. A longer term was granted for the license of Joseon's fishery owner.





The term of fishery right licenses at that time was stipulated by Article 6 of 『Fishery Ordinance』, which went “the term of fishery rights shall be within 10 years of the date of the license’s issuance and shall be defined by the Governor General”. “Provided, That: the term may be renewed at request of fishery right holders”, so the term was renewed after the first granting of a maximum of ten years.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ule of Fishery Ordinance stipulated, “A person who wishes to obtain a license for renewal of the term of his fishery right shall define the term for the renewal and apply for it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with an attachment of the original license”, but the Rule did not specify clearer and more detailed administrative principles regarding the granting of the term of the right.

Next, you are seeing here a case of a fishery right abandonment report in 『Official Gazette』 as of August 25, 1914, which was submitted due to a change in the content of a fishery right after its granting. It was announced in 『Official Gazette』 on August 25, 1914, regarding a report for abandonment of a fishery right.

To look into the detail, fishery right license No.212 was type 4 licensed fishery business for the right of catching sardines by attracting them with torchlight. Type 4 licensed fishery business is a fishing method of building or installing fishing nets during a certain fishing period on a certain spot of the surface of water; it installs fishing nets alongside the fishway of shoals of anadromous fishes that move mostly in shoals such as yellow corbina and sardine.

It is a fishing method of utilizing phototaxis that stimulates fishes and their nature of following the light, which uses torchlight on boats to attract such fishes. The fishing ground of the fishery right was located in the Somyeon-do Island in Nam-myeon township, Yeosu-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fishery right disposition was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abandonment of the fishery right by a fishing association based in Yamaguchi Prefecture as of May 20,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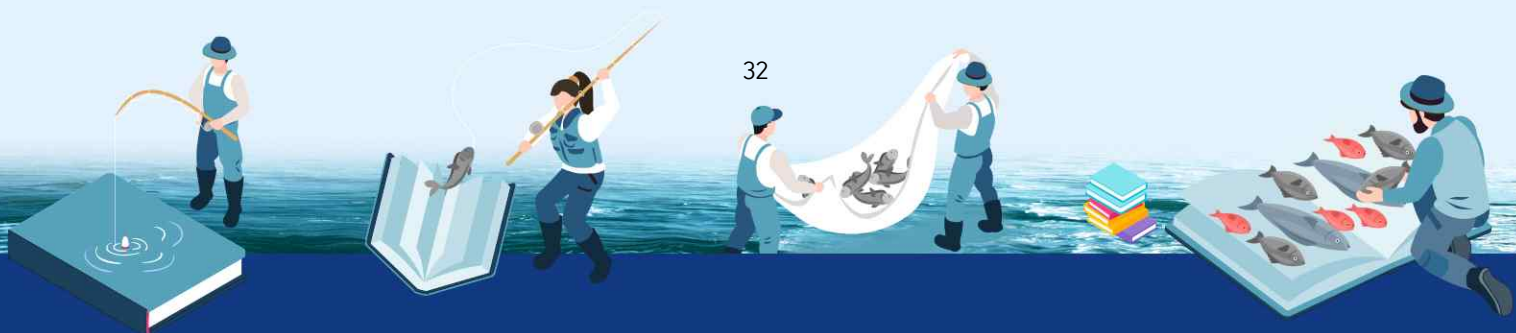




This table that compares the content recorded in the section on licensed fishery business and the section of fishery dispositions demonstr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ords about newly-issued fishery licenses and records about other fishery dispositions; it shows the fact that only limited information was recorded as for the fishery right abandonment reporting in 『Official Gazette』 as of August 25, 1914, than the information of new license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Both contained information of the license number, type of fishery business, name of fishery business and gears, etc. However, the object of collection, fishery business term, restrictions, date of license, fishery right holder, and their address were not recorded in the section of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However, detailed information about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was written in summary, so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history of the fishery right disposition and the date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as available.

In this lecture, we examined the form of records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Next time, I will deal with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recorded in the original registry of fishery rights and fishery right statistics drawn from the information.





## 5-2

## Fishery Right Dispositions and Fishery Right Statistics

In the last lesson, we looked into the form of records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This time, I will introduce you to fishery right statistics drawn from the collection of fishery right dispositions record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analyze them.

First of all, let us understand the types and content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Licensed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were administrative actions taken regarding licensed fishery business based on 『Fishery Ordinance』 and 『Enforcement Rules of Fishery Ordinance』, which can be summarized in this <Licensed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and major content of them> you are seeing here.

Dispositions on licensed fishery busines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was regarding the issuance and extinction of fishery rights including their new issuance, renewal, expiration, etc.; the second category was regarding change in the ownership right of fishery rights including transfer, sharing, lease, settlement of mortgage, inheritance, etc.; and the third category was regarding changes in the content of licenses, including the change of representatives, licensed elements, correction of licenses, postponement of the initiation of business, cessation of work, etc.

In detail, the first category regarding the issuance and extinction of fishery rights included cases of newly-issued fishery rights, fishery right holders' expression of their will to voluntarily abandon fishery rights, automatic extinction of rights of a fishery right holder who has no successor, or cancellation of licenses following Article 10 and Article 11 of Fishery Ordinance.





Article 10 of the Fishery Ordinance stipulated the Government General's authority to restrict fishery rights for protection of marine animals and plants, realization of military and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for a sanction against the failure of fishery tax payment, while Article 11 stated that fishery licenses might be canceled for a reason of an administrative error or insincere fishery business operation, which included a case of not operating fishing villages without a specific reason.

Next, as shown in the table, elements regarding changes in the property right such as succession and transfer of fishery rights included the transfer, inheritance, sharing, lease, mortgage, sublease, transmutation, etc.

According to Article 8 of 「Fishery Ordinance」, "Fishery rights can be used as the purpose of proprietary right in the case of inheritance, transfer, sharing, mortgage, and lease". "Provided, That a permission from the Governor General shall be obtained except for inheritance"; so until the time of 「Fishery Ordinance」, fishery rights had the characteristics of an incomplete real right, whose property right could be exerted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General. Based on the legal provision, legal relationship in terms of property right such as transfer, lease, and inheritance similarly to land was established for fishery rights, which made fishery right holders' exertion of their property right possible.

For reference, the real right nature of fishery rights was legally established as Article 15 of 「Joseon Fishery Ordinance」 of 1929 enacted based on the fishery ordinance stipulated "fishery right is a real right and rules for land are applied to it"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Joseon Fishery Ordinance」 on May 1, 1930, recording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in the official gazette was ceased.

As you may know what transfer, inheritance, sharing, lease, and mortgage out of the changes in fishery right as property right mean based on your common sense, I will not explain the terms. For your information, the transmutation of fishery right means the right's public sale to a successful bidder instead of cancellation of the fishery right in case of the failure of the fishery business tax.





In addition, there is a record about the selection and change of fishery right representative, which reflects a regulation of Article 7 of 「Enforcement Rule of Fishery Ordinance」 which stipulates that one person be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when two or more people try to obtain a license or permission collectively and a report be submitted in case of a change.

Lastly, 『Official Gazette』 also included records about change, correction, re-issuance, extension of initiation period, and cessation of business regarding licenses. Regarding this, there were five competent provisions below Article 10 of 「Enforcement Rule of Fishery Ordinance」.

Article 10 of 「Enforcement Rule of Fishery Ordinance」 stipulates that correction be filed in case the type and name of a fishery business, location and area of a fishing ground, type of collected or cultured goods, or time of fishery business is changed, while Article 13 stipulates it for a case of change in the personal data of the fishery right holder. Article 11 specifies reporting of initiation or cessation of business operation, while Article 14 includes a provision on the re-issuance of a lost license.

In case such a change takes place, a fishery right holder took a relevant action by making a report to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it was publicly announced through 『Official Gazette』.

My research paper analyzed the original registry of fishery busines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during the period of 1909 to 1921, an early pha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ishery Act」 was first introduced in 1909 and the year 1921 was the 1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Fishery Ordinance」 that succeeded the Fishery Act.







The term of a license for fishery right stipulated in 「Fishery Ordinance」 was maximum 10 years, so fishery rights issued in the first year of 「Fishery Ordinance」 had to be renewed or expired in 1921 without fail. That is why the year 1921 is meaningful as the time for the lifespan of fishery rights that had been issued until then expire for the first time. Therefore, the 13-year-long period from 1909 to 1921 when a modern fishery rights system was implemented is very meaningful as the time of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early fishery rights system in Korea.

Meanwhile, information about approximately 4,900 cases of licensed fishery right issued for five years from 1909 to 1913 was omitted in 『Official Gazette』. The missing information was obtained from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n licensed fishery rights issued after 1914, to supplement the content of this lecture. I would like to give you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at.

The first time when a disposition taken on a fishery license wa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was 1914, regarding fishery right No.4903. The license number of fishery rights was given sequentially, so it can be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4,900 licenses were issued during the period from 1909 until the end of 1913 when dispositions on fishery licenses were not recorded in the gazette. This also means that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ose 4,900 fishery rights issued from 1909 to 1913 .

Therefore, data of the omitted fishery rights during that time period was restored by utilizing the fact that in case a disposition is taken for factors such as change in existing fishery licenses, the change was recorded in the summary part in the gazette along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license issued before.





As shown by the fishery right abandonment reporting announced in 『Official Gazette』 as of August 25, 1914, records about dispositions on fishery business licenses included not only new issuance, but also follow-up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the extinction, renewal, transfer, and change of the representative of existing fishery rights. This is useful for closing the gap in the information about fishery rights issued from 1909 to 1913. That is because the fishery business licenses issued from 1909 to 1913 had to be expired within 10 years without fail, to be extinct or renewed.

Then, the information about the extinction and renewal of the rights had to be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of the time whe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as completed.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out data about the fishery rights issued from 1909 to 1913 that went extinct due to the abandonment or expiration of the rights by that time. Approximately 600 cases of fishery rights of that period have yet to be identified, so the restoration rate for the data of fishery rights issued from 1909 to 1921 is 87.8%.

Plus, in case where multipl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ere taken for sharing, transmutation, lease, or transfer of fishery rights estimated to have been issued from 1909 to 1913 over the period of 1914-1921, the data was restored based on the earliest record in principle.

The research paper obtained 8,961 cases of information about respective fishery rights from 『Official Gazette』 in the research paper. Out of approximately 4,900 cases of fishery rights granted before the end of 1913, I restored data of 4,299 cases and 4,662 cases of fishery right was obtained from regular records in 『Official Gazette』 from 1914 to 1921.

This statistical table about the dispositions taken on licensed fishery busines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published from 1914 to 1921 organizes the fishery business information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from 1909 to 1921 based on the dat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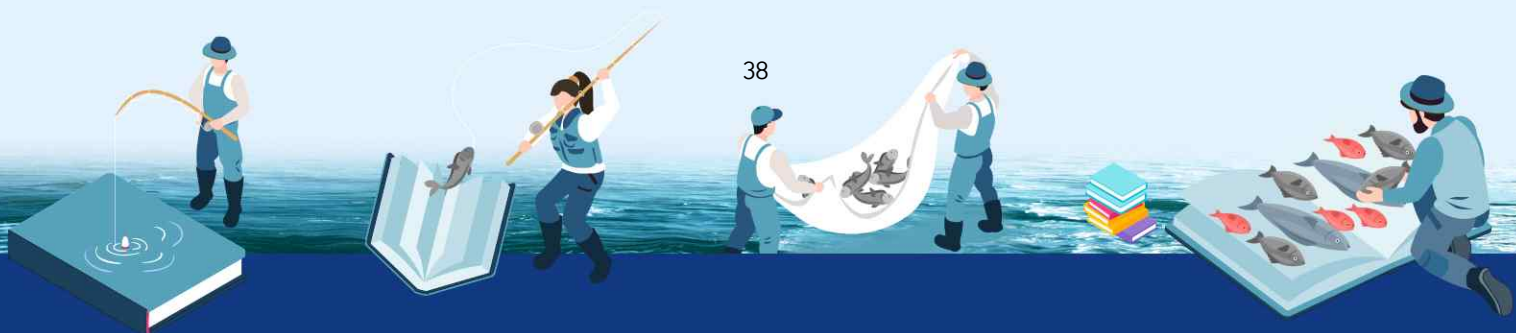


As there is a time gap between the dat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their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cord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January in 1915 might have been completed in December, 1914. I thought that the dat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hould be applied for the statistics as they are the original data.

Total 11,967 articles about licensed fishery business were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from 1914 to 1921. Over the eight-year period, yearly average of 1,496 articles about licensed fishery business were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Beginning from 1,637 articles in 1914,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at 2,304 were published in the gazette in 1918, the 10<sup>th</sup>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majority of those 11,967 articles about licensed fishery business were about the issuance and extinction of fishery rights. The number was 7,632 in total, 63.8% of the entire articles. Among them, 4,662 were about new license for fishery rights and 2,334 were about the extinction of fishery rights for the reason of the abandonment of fishery rights, death of fishery right holders, cancellation or expiration of fishery rights, etc. For 636 cases, the effect of fishery rights was extended as their term of existence was renewed. This shows that the number of extinct fishery rights was 3.7-times larger than that of extended ones.

Next, 2,767 articles were about fishery rights' change in terms of their property right such as the inheritance and transfer of fishery rights, taking up approximately 23.1%. The largest number, at 1,668 cases, was the transfer of fishery rights. Lastly, 1,568 articles, approximately 13.1%, were abou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permission of a change in the elements of licenses.





Based on the review on the dispositions on fishery licenses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the action most frequently taken regarding fishery rights at that time was the issuance and extinction of licenses. Notably, the issuance of as many as 4,662 new fishery rights over the eight-year period from 1914 to 1921 reflected the circumstances of that time: expansion of the absolute area of fishing grounds and fishery business license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fishing grounds in Korea.

Two thousand three hundred thirty-four fishery rights went extinct over the same period, accounting for almost half of fishery license issuance. The number of fishery right transfer was 1,668, smaller than that of extinction. The fact that extinction of fishing grounds took place more frequently than transfer demonstrat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which are created with a certain spot on the sea and certain gears, differently from land.

Land, another natural resource, is usually limited in expansion, as its range is limited. According to 『Government General Statistical Yearbook』, the area of land subject to land tax was 4,421,000 jeongbo (1 jeongbo=9,917.35537 square meters) in 1918, out of which 4,254,000 jeongbo was fields and paddies in combination. Then, the land area in 1943 was 4,567,000 jeongbo, of which 4,388,000 jeongbo was fields and paddies; thus, the land area and the area of fields and paddies increased by only 146 jeongbo and 134 jeongbo, respectively, over 25 years.

Land is worth owning as it is as proper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ombined with the means of production, so it was very rare for its owner to abandon the ownership voluntarily and the right went extinct; disposition of land ownership is mostly implemented in the form of transfer tr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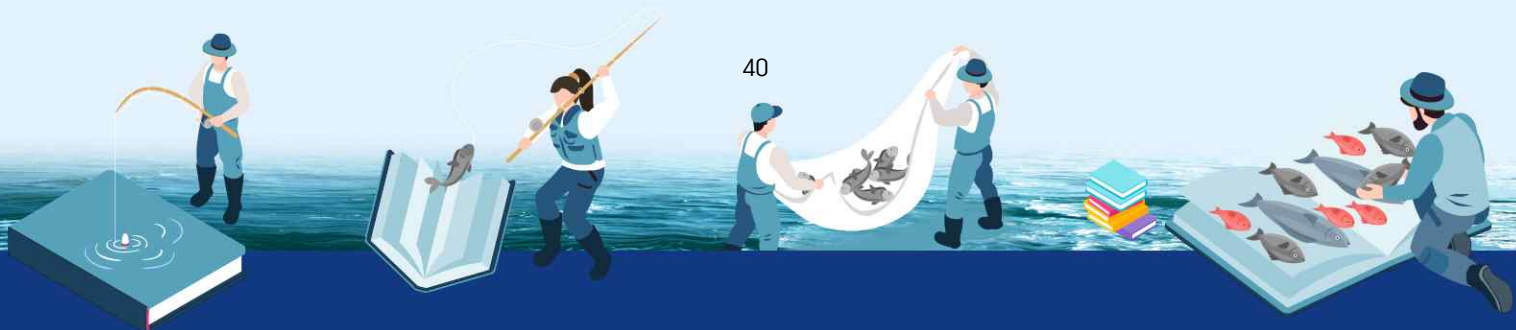
That is why many previous studies utilized the record of land ownership transfers as the data for analysis of the economy of agricultural villages in the past. For example, there was a study that estimated the economic situations faced by farmers back then, based on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land owners by the area of land they owned. It is natural tha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nd owners results in the downsizing of the land area owned by per person.

However, as shown by the statistical table on the fishery license dispositions, there was a larger number of fishing ground owners' voluntary extinction of their rights than the number of transfer trades of fishing grounds. This is because fishing grounds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of creating value as a property only when combined with means of production, such as fishing gears and boats.

Most of all, fishery resources that inhabit in fishing grounds can move on their own and it is difficult for humans to visibly judge how many resources are contained in fishing grounds on the sea and how much economic value they actually have.

Plus, the renewal rate of fishery resources is affected by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how big the catch of the previous fishing season was, so fishery output is very volatile and this results in great uncertainty in the rate of return for fishing grounds. So, records about the extinction of fishery rights provides an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ing of fishery business management trends of that time, along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new issuance and transfer disposition of fishery rights. I will cover this topic in 5-4 section of the lecture which is about change in the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In this lecture, I explained about fishery statistics in the category of the issuance/extinction of fishery rights, change in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and others,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fishery right dispositions recorded in the official gazette. Next time, we will look into the types of licensed fishery ownership.





### 5-3

### Type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Ownership

Last time, we looked into fishery right statistics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This tim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type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ownership,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 of change in th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in terms of three issues: new issuance, extinction, and transfer of fishery rights. I collected information about fishery owners from the records about fishery business licenses in 『Official Gazette』 and organized the result.

Let me first explain the type of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First, let us look into the type of ownership when acquiring new fishery rights.

Fishery right is a real right which authorizes exclusiv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but the object of the ownership has characteristics as a shared resource in principle. The type of fishery right ownership explains the customs of using fishery resources which were shared resources of that time, as well as the system of controlling th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For example, it is to answer a question about which of co-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and individual ownership the type of ownership of fishery rights was close to.

The type of ownership by fishery owners who acquired fishery rights under 『Fishery Ordinance』 was divided into largely three types. The first type was ownership of fishery right individually by one person. In such a case, the fishery right holder becomes the representative.

The second type is co-ownership. Co-ownership means a case when the legal agent of ownership includes two or more persons. For reference, Article 7 of 『Enforcement Rule of Fishery Ordinance』 stipulated that in a case where two or more persons try to obtain a license or permission for fishery business jointly, one of them be designated as a representative and such fact be recorded in the reporting or application for license.





Based on such regulation, 『Official Gazette』 recorded the co-owners and the representative for a fishery right co-owned by multiple people together. There is such a case of new license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For example, licensed fishery business No.4933 was co-owned by four right holders; three persons including Park Gyeong-pil and representative Kim Soo-hong”.

The third type is ownership by associations. Those associations can be divided again into multiple fishery owners or associations based in villages, ones create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such as “Nagasaki Prefecture Ocean Fishery Group”, and companies such as “Busan Fishery Corporation”. In the case of village fishery associations, most of them did not have specified representative, mostly just writing “Haechang, Mokhwajeong, Do-ri village, village, long beach, fishery owner of respective villages”.

However, there were some cases where the representative of fishery right was specified like “seaweed collecting owners of respective villages, representative Ko Byeong-gu” as in fishery business license No.5569. That was however true for only a few case and it was not a general format. Here, if the fishery right holders are written as fishery owners or associations based in villages, the type of such right’s ownership can be seen as collective ownership.

Let me give you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e unfamiliar term, collective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is a legal term. The type of ownership jointly held by multiple people is divided into co-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according to the Civil Act.

Collective ownership is held by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ithout a capacity for enjoying private right; while the community holds the authority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the object of ownership and all the members have the share, disposition of the members’ right of share is blocked. It is similar to village fishing associations of nowadays.





The members of fishing associations are united as a group and disposi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object of the ownership—village fishing ground—can be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adopted at general meetings based on the association's authority.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acquire the qualification as an association, to hold a co-ownership together with the right to using and profiting from the collectively-owned objects within a certain range. Most of all, shares are not held by individual members and they could not file for property division.

Cooperative is the most typical type of partnership-ownership; it is the same with co-ownership in that the ownership cannot be shared and belongs to multiple people, but it is different from co-owned share in that shares cannot be freely disposed of as it is tied down for a joint objective. In short, it is somewhere between co-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Co-ownership is held by multiple people who have shares and they can freely dispose their shares.

This table here shows the categorization of the fishery right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from 1909 to 1921 into the three types that I have just explained. The uppermost line is about the type of fishery right ownership by one person, co-ownership, and ownership by associations. The ownership by one person refers to a case of individual ownership by a person, while co-ownership means the combination of ownership divided among multiple people.

The ownership by associations is divided into collective ownership based in local communities, ownership by associations of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and ownership by corporations. The ownership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could fall in all of the collective 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public ownership categories, but here, I categorized it separ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y were immigrants' associations.







Out of 8,961 fishery rights issued in early perio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from 1909 until 1921, 5,304 (59.2%) were individually owned by one person, followed by 1,660 (18.5%) co-owned by two or more persons and 1,997 (22.2%) granted to other types of associations.

Different methods of data collection was applied to restored data and regularly-announced data, which is divided into the time period of 1909-1913 and 1914-1921; out of 4,299 restored fishery rights out of the fishery rights issued from 1909 until 1913, 2,501 (58.2%) were individually owned by one person, 706 (16.4%) were co-owned by two or more persons, and 1,092 (25.4%) were granted to other types of associations.

Among 4,662 fishery rights issued over the 1914-1921 period, 2,803 (60.2%) were individually owned by one person, 954 (20.5%) were co-owned by two or more persons, and 905 (19.4%) were granted to other types of associations. Such figures show the fact that the proportions of ownership by one person and co-ownership increased over the 1909-1913 period and the 1914-1921 period, but one of the reasons for such increase was the weakening of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collective ownership which accounted for 7.3% in early times.

Separately from such trend, locally-based collective ownership was being expanded over the 1914-1921 period, according to the figures.

More than half of the fishery rights granted in early tim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ere individually-owned ones, showing a clear trend of fishery rights owned by one person. Co-ownership also accounted for 18.5% and its example was explained in the second week's lecture by examining a case of trading of fishing grounds' shares recorded in trading title deeds of the Joseon Dynasty era.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fishery right ownership by one person and co-ownership by a small group of specific people was high at 77.7% in early tim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demonstrates that while certain fishing grounds or fishing gears had been operated in the manner of monopoly by one person or small number of certain people from the past, th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developing in connection with that.

Even though it accounted for only 16.4% of the entire fishery rights, the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existence of collectively-owned fishery rights during the colonial era is a noteworthy result.

Third, in the fourth week's lecture, I explained that collective ownership was mandated for some of fishing grounds in legalizing and implementing the fishery rights system during the colonial era. Notably, the 1909-1912 period was relatively freer from the mandatory regulation, so the existence of collective ownership by local fishery owners during that period can be regarded to have been inherited from traditional fishing society.

Plus,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obtaine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associations from 1909 to 1921 was 326, accounting for 3.6% of the entire fishery rights. business licenses were acquired by associations in early tim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from 1909 to 1913, out of which 313 were obtaine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associations, accounting for 7.3% of the entire fishery rights granted during that period.

Then, over the period from 1914 to 1921, the number of new licenses issued for Japanese immigrant fishery associations was only 13, which were mostly granted in an early period from 1914 to 1916. This means that the share of Japanese immigrants' fishery in Joseon was large in the early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and they made certain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lready in 1908, there were total 4,820 Japanese fishery owners in 1,146 households, who immigrated to Joseon. However, the proportion of fishery right ownership hel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associations in the entire fishery rights remarkably declined as the system was matured.

As shown by this figure, the number of Japanese immigrant fishery operators rapidly grew until the 1907-1911 period, reached the peak in 1912, and then began to stagnate over the 1915-1921 period. In short, in the late 1910s, immigrant fishery operators were being restructured with a focus on fishing villages for settlement, when they gathered mainly at fishing villages favorable for fishery business operation.

The most well-known settlement sites for them at that time was Bangeo-jin in Ulsan city, Daebyeon in Busan city, Yeongdo and Tongyeong. The population of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in 1911 was only 285, but it increased to 3,073 in 1921; in Yeongdo, the number increased from 910 to 4,214; in Daebyeon, from 56 to 114; and in Ipjwa-chon village (Japanese village) in Tongyeong, which is now Irisa-chon village in Jangseungpo, from 400 to 698. The population of Tongyeong where Ipjwa-chon village was located was 2,282 in 1921.

Indeed, it is a proven fact that Nakabe Ikujiro[中部幾次郎]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ishery business in Joseon as the CEO of Hayashi Kane Shoten[林兼商店] that grew into Japan's leading fisheries conglomerate later moved the headquarters of the company from the Naro-do Island to Bangeojin in East Sea where Japanese fishery operators were concentrated in 1915. However, the decreased number of fishery license issuance to Japanese immigrant fishery associations did not mean decrease in the number of Japanese fishery owners in Joseon. They were mostly gathered at immigrants' fishing villages. In early stage, then in later stages, they acquired fishery rights as individuals, in the form of co-ownership, or by forming fishery associations; especially after the 1920's, their fishery right ownership was reorganized focusing on fishery association. This will be explained in greater detail in the section about change in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later on.





Meanwhile, what was the ratio of Joseon's licensed fishery owners to Japanese licensed operators like back then? This is an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ing who the more predominant owner was in early stage of fishery rights system. We can indirectly find out the information by compar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one-person fishery owners and co-owned fishery owners.

In the record about newly-issued licenses in 『Official Gazette』 as of January 28, 1914 that we have already examined, licensed fishery business No.4933 was co-owned by total four people including “three persons including Park Gyeong-pil and representative Kim Soo-hong” and the representative was a Joseon person. This table shows the information of fishery right holders' nationality, which was extracted and organized based on their names.

Out of 5,304 licensed fishery rights owned by one person over the 1909-1921 period, 71% at 3,765 were obtained by the people of Joseon, while 29% at 1,539 were obtained by the Japanese. Plus, out of 1,659 co-owned fishery rights granted over the 1909-1921 period, 70.7% at 1,173 had a person of Joseon as their representative, while 28.6% at 475 had a Japanese person as the representative.

Overall, the ratio of Joseon people and Japanese among the holders of one-person or co-owned fishery rights was maintained at seven to three. This demonstrates the fact that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who had already experienced the fishery rights system under 「Former Fishery Act」 enacted and promulgated in Japan in 1901 obtained fishery rights from early s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in colonial Joseon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actively led its implementation.

Indeed, many studies have confirmed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wrote the Fishery Association Rules based on the prior experience in Japan and was instructing elementary and government-led establishment of fishery associations and enactment of rules for them. At the same time, such figure—high proportion of Japanese fishery right holders at 30%—may also be interpreted as the proof for Japanese fishery owners' exploitation of fishery resources during the colonial rule.







According to 『Government General Statistical Yearbook』, the number of fishing households engaging in fisheries in 1911 was 87,869, out of which 4,339 were Japanese households and 83,530 were Joseon's households, so the proportion of Japanese was only 4.94%. The reality of higher proportion of fishery rights owned by Japanese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Japanese fishery owners' households was sustained consistently until 1921. This demonstrates the fact that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equipped with modern fishing techniques and capital actively developed and penetrated into Joseon's fishing grounds.

Lastly, this table here shows effective fishery rights per year during the 1913-1921 period by the type of ownership, based on a definition of fishery rights actually effective as of the end of respective year as "effective fishery rights".

I organized the information as such, because, while fishery rights were newly generated, their legal right also went extinct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expiration of term, abandonment, death, extinction, cancellation, etc. This can be also identified in the section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dispositions and their major contents as seen here.

In the table here, approximately 9,600 fishery rights were issued until 1921 and the number of the fishery rights with practically effective legal rights over the 1914-1921 period was 4,298 at the end of 1913 and 6,617 at the end of 1921. This tells us that the number of practically effective fishery rights were increasing by 5.5% rate on yearly average.

By the agent of ownership, out of legally effective fishery rights, ones owned by one person increased from 2,500 at the end of 1913 to 3,774 at the end of 1921; co-owned fishery rights from 706 at the end of 1913 to 1,136 at the end of 1921; and fishery rights owned by locally-based fishery owners from 604 at the end of 1913 to 1,596 at the end of 1921.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owned by one person was increasing by 5.3% on yearly average, while the number of co-owned fishery rights, by 6.1% on annual average.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owned by locally-based fishery owners was growing by 12.9% on yearly average, posting the highest growth rate among all the types of ownership. This is a result that complie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wnership by fishery owners and fishery associations in the trend of change in fishery right ownership to be discussed later.

Meanwhile,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owne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 groups and companies decreased by an annual average of 20.7% from 313 at the end of 1913 to 49 at the end of 1921 and by an annual average of 12.3% from 175 at the end of 1913 to 62 at the end of 1921, respectively. By the type of ownership,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owned by one person at the end of 1913 was 2,500, accounting for 58.2% out of total 4,298 at the end of 1913, and the number was 3,774 at the end of 1921, accounting for 57% out of total 6,617.

In short,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fishery rights owned by one person decreased to some extent during the 1913-1921 period, they were still maintaining 50% or higher share on average. The proportion of co-ownership also maintained similar levels at 16.4% (706) at the end of 1913 and at 17.2% (1,136) in 1921.

In the meantime, the share of licenses owned by locally-based fishery owners or associations increased from 14.1% (604) in 1913 to 24.1% (1,596) in 1921. On the other hand, the share for Japanese immigrant fishery operator associations and corporations was only small at 0.7% and 0.9% in 1921, respectively. It shows a trend of change in the way of acquiring fishery rights, not just by associations but also by co-ownership, etc.





To summarize, fishery rights were expanded at 5.5% of annual average growth rat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y existed in diverse forms including individual ownership by one person, co-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While the ownership of fields and paddies was concentrated on individual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ownership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one right per property, fishing grounds were owned in diverse manners such as exclusive ownership by one person that accounted for more than 50%, as well as co-ownership of shares at 16.4 to 17.2% and collective ownership at 14.1 to 24.1%.

So, the private occupancy of fishing grounds that had passed down from long before and new fishing practices of co-owning and using/managing village fishing grounds by fishing communities existed together. Also, the trend of expanding fishing ground ownership by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era is directly demonstrated by the fishery right statistics recorded in the official gazette.

This time, I explained the types of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Next time, I will discuss the trend of change in the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5-4

**Trend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Ownership and the Implement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shery Rights System During the Colonial Rule**

Last time, we examined the type of the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This time, I will discuss the trend of change in the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business. Plus, based on what I have introduced so far, I will explain the characteristic of the ownership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ishery rights system during the colonial era.

A change in ownership refers to a change in the agent of the right. The change in fishery right's ownership takes place following its transfer, compulsory transmutation,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etc.

First, transfer means an act of handing a fishery right over to another person. As fishery rights can be co-owned by share splitting, transfer may take place either for the entire fishery right or for part of it. It is the most frequent cause of change in the ownership.

Second, a fishery right may be transmuted as a legal enforcement measure. According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Fishery Ordinance」, the Government General was able to restrict a licensed fishery business or suspend or cancel the license in case the fishery right holder fails to pay the fishery business tax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In such a case, the fishery right in question was just canceled or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hrough an auction.

Third, a change may take place in ownership due to splitting of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which means, co-owning. As fishery rights can be co-owned by multiple people by share splitting, the owner may change following share transfer or abandonment among the shareholders. Plus, generation of a new shareholder through share splitting also causes change in th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This table shows different types of change in fishery rights' ownership. It demonstrates that total 1,755 cases of fishery right ownership change took place from 1914 to 1921. While 160-220 cases of general ownership change took place annually, the number skyrocketed to 405 in 1920.

Before analyzing the table, I would like to give a simple explanation about each item here to help your understanding. The first consideration in creation of this table was whether the purchaser of a fishery right was an existing shareholder and whether the object of transfer was the entire fishery right or part of it. Lastly, I also distinguished between a new splitting of a fishery right and a compulsory transmutation of the right due to failure to pay fishery tax.

Type ① is the transfer of the entire fishery right to another person. In such a case, the ownership type may change in the process of the transfer of the fishery right. For example, if a fishery right whose shares were co-owned by multiple people is transferred to one individual, the type of the right's ownership changes into an individual ownership by one person.

However, in case a fishery right that had been individually owned by one person is transferred to another individual, change in the ownership type may not take place. As you can see in the table, the number of cases of entire fishery right's transfer to another person was 1,514 from 1914 to 1921 and 86% of all the fishery right ownership change fell into this category.

Type ② includes transfer of part of the shares of a fishery right owned by certain multiple people to another person. In such a case, change in the owner takes place for part of the shares, but the fact that the ownership type of the fishery right is "co-owning" does not change. There were only 39 cases of such transfer of part of shares of fishery rights to other people during the 1914-1921 period, so it did not take place frequently.





Next, the change of ownership status of fishery rights due to transfer and abandonment among shareholders is shown in ③ of the table. The cases in ③ include a change in fishery right ownership type from co-ownership into individual ownership by one person du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fishery right on one shareholder in the process of other shareholders' transfer, abandonment, or death. This is legally called the concentration of shares.

Such concentration of fishery right shares from co-ownership into one person's ownership took place 81 times from 1914 to 1921. Among them, 58 were transfer from a co-owner and 23 were the case of abandonment. The cases in ④ are like the ones in ③ in that shareholders transfer or abandon part of their shares, but in such cases, change takes place just for the composition of the owners as in the cases of ② but the "co-owning" ownership type itself does not change. Such transfer of shares took place for 67 times from 1914 to 1921, so it was a rare case.

Other than those, fishery rights can be newly split for another person through permission of sharing, which is shown in ⑤ of the table. There were 41 of such cases over the 1914-1921 period. In 29 cases among them, fishery rights that had been owned by individuals became shared with other people; in 11 cases, new shareholders were added to fishery rights that had been co-owned originally; and in one case, a shareholder was added to a fishery right that had been owned by a Japanese immigrant fishery association. Lastly, there were 13 cases of "transmutation" of fishery rights after their public sale disposition due to failure of fishery tax payment over the 1914-1921 period.

This table here shows cases of change in fishery right ownership from 1914 to 1921 following their transfer, transmutation, and splitting/absorption of shares, categorized in different types. As individuals transferred their independently-obtained fishery rights, the type of the ownership changed into co-ownership, independent ownership by one person, or corporate ownership, etc. according to who the purchaser is; this table shows such cases comprehensive.





There were also cases where only the legal name of ownership changed without a change in the actual owner as a collectively-owned fishery right that had been acquired by village fishery owners was transferred to a "fishery association". This table summarizes the result of change in the ownership type as of the time of fishery right issuance, to show the trend of change in the fishery right owners over the 1914-1921 period.

The yellow part describes the ownership type as of the time of the issuance, and the green part shows the result of change in the ownership. For example, the 98 fishery rights highlighted with the red circle were co-owned by multiple fishery owners by shares as of the time of their issuance, but some right holders transferred their right to third parties afterwards to cause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owners but the type of their ownership remained the same as co-ownership.

The 250 cases marked with the violet circle are fishery rights that had been share by multiple people at the time of their issuance but then became individually owned by one person afterwards. First, they may be seen as cases of concentration of fishery right shares on one person, as the holder who had co-owned the rights abandoned or transferred their share to one of the shareholders, not to a third party. Second, they may have become owned by one person as a result of transfer of the entire fishery right that had been shared by multiple people to one third party en bloc.

As demonstrated in the table, there were 1,755 cases of partial or entire ownership change of licensed fishery rights over the 1914-1921 period. Among them, 1,007 (57.4%) were cases of change in the owner of fishery rights that had been owned by one person at the time of their issuance; 393 (22.4%) were cases of change in the co-owned fishery rights; 162 (9.2%) were cases of change in fishery rights collectively owned by local fishery owners; 96 (5.5%) were cases of change in fishery rights collectively owne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and 97 (5.5%) were cases of change in fishery rights owned by corporations.





By the type, the case of fishery rights that had originally been owned by one person transferred to an individual agai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t 37.2% (652 cases). There were 250 cases of co-owned fishery rights transferred to an individual (14.2%) and 212 cases of individually-owned fishery rights transferred to associations (12.1%), and 156 cases of fishery rights collectively owned by fishery owners based in villages transferred to fishery associations (8.9%).

Eventually,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independently owned by one person decreased from 1,007 to 985 and the number of co-owned fishery rights decreased from 393 to 248 following change in the ownership of licensed fishery rights such as transfer over the 1914-1921 period, while the number of the rights owned by fishery owners' associations increased from 258 to 415. The number of rights owned by corporations also increased from 97 to 107.

As already seen by the explanation about the type of fishery right holders' ownership of fishery licenses as of the time of their issuance, the proportion of fishery rights held by one fishery owner or their sharing was the highest at 77.7% during the 1909-1921 period, so it is natural that the number of those fishery rights' transfer trading and ownership change was the biggest proportionately.

On the contrary, 415 fishery rights whose ownership type changed into ownership by associations and fishery owners accounted for 23.6%, which shows the trend of shift in fishery right ownership from collective ownership by multiple village-based fishery owners into the form of associational ownership.

This table summarizes the status of licensed fishery rights that came to be owned by associations following changes in ownership from 1914 to 1921 by region and association. During the period, the fishery right holder changed into associations/fishery owners in a total of 415 cases. Among them, the owner changed into association for 409 cases and into local fishery owners in six cases.







The 409 fishery rights transferred to fishery associations were scattered nationwide: 11 in Gyeongsangnam-do Province, 7 in Jeollanam-do Province, 6 in Pyeonganbuk-do Province, 5 in Hamgyeongbuk-do Province, 1 in each of Gangwon-do Province, Gyeongsangbuk-do Province, Jeollanam-do Province, Chungcheongnam-do Province, Pyeongannam-do Province, and Hamgyeongnam-do Province, which shows the fact that fishery rights' transfer to fishery associations was a nationwide trend.

The number of fishery rights transferred to fishery associations was 288 in Gyeongsangnam-do Province, 37 in Gyeongsangbuk-do Province, 30 in Pyeonganbuk-do Province, 25 in Jeollanam-do Province, 15 in Hamgyeongbuk-do Province, and less than 10 in other provinces. So, such cases were mostly concentrat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Plus, among those fishery associations, Gwang-do Island dragnet fishery association, Songjin fishery association, and Geomun-do Island fishery association are the ones that received a transfer of fishery rights that had been owned by Japanese fishery owners, so they are estimated to be fishery associations led by Japanese people.

In addition, among those 409 fishery rights transferred to fishery associations, there were 212 cases where licenses that had originally been independently owned by one person were transferred to associations. Among them, 203 cases were type 3 licensed fishery right which had originally been owned by a Japanese person and then transferred to Gwang-do Island dragnet fishery association located in Tongyeong,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reason for the rapid increase in the fishery rights transferred to associations in the table was be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wang-do Island dragnet fishery association.





There were only nine cases of fishery rights' transfer from independent one-person ownership held by a person of Joseon to fishery associations. So, the cases of change in individual ownership of the fishery rights by one person into associations' ownership was not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fishery associations consisting mostly of Joseon people but of Japanese fishery owners that had originally owned those fishery rights. However, other cases than those were a transfer of fishery rights that had originally been co-owned or collectively owned by fishery owners to fishery associations, which demonstrates the fact that fishery associations were emerging throughout the country though in small numbers.

Lastly, let us look into the characteristic of ownership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ishery rights system during the colonial era.

The fishery rights system of the tim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recognized fishery rights as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separate from land and guaranteed the legal ownership, while it also preserved and maintained the continuity of fishing ground ownership that had been preoccupied by a small number of certain people from the Joseon Dynasty period.

However, as for villages' joint seaweed collection and shellfish gathering grounds that had been collectively owned customarily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resources regardless of their ownership under the control of fishing communities by noblemen and royal relatives, their control and ownership by the upper class based on the class's material power was denied and only collective ownership by the members of villages was recognized, giving birth to a group of new owners consisting of locally-based fishery owners.

While the private ownership of fishery rights could not be violated by law, private ownership of fishing grounds, the object of collective ownership, was institutionally prohibited. The issuance of fishery rights during the colonial rule era was expanding very rapidly and the fishery rights in the form of collective ownership recorded a especially fast growth. The two main agents of collectively-owned fishery rights were traditional community fishery owners and fishery associations established by Japanese immigrant fishery owners.





In this week's lecture, I analyzed the reality of the fishery rights system in early times of the introduction of 「Fishery Act」 and 「Fishery Ordinance」 based on dispositions taken on licensed fishery business recorded in 「Official Gazette」 that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of the issuance, extinction, and ownership change of fishery righ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era, to underst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ownership of fishery rights and its reality at that time.

In this lecture, I explained the characteristic of fishery rights during the colonial rule that had continued from th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various ownership agents of fishery rights including individual ownership by one person, co-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establishment of fishery rights as an independent right; i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collectively-owned fishery rights; dualization of the agent of fishery rights' collective ownership into traditional fishing communities and fishery associations; and lastly the trend of continuous growth and expansion of fishery rights, based on major information about fishery right dispositions tak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this lecture can close the gap in previous studies about the fishery rights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and contribute to rais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topic.

Now, five lectures of "Development of Fisheries in Korea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Fishery Act" have been completed. We have understoo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ownership for fishery resources—shared resources—in Korea and its legalization into a modern form, which is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n the next, sixth lecture, I will discuss the topic of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the Korean economy, as a supplementary explanation. I thought that it is meaningful to include content about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fisheries in this course, so in the next week's lecture, I will examine the meaning of fisheries in the economy of Korea, based on the country's economic statistics such as its GDP, output, export/import, and so on. This is the end of my fifth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5周

## 近代渔业法的引入和渔业权的所有权变动

5-1

### 官报和渔业权原簿的收录形式

同学们好，我是担任《韩国渔业发展史》讲座的宋庆殷。本次讲座是第五堂课，我们通过渔业权统计来看从韩末到殖民地时期的近代渔业法的形成结果。也就是说，通过渔业权统计资料，考察根据近代渔业法颁布和处置渔业权的所有制变动情况。

众所周知，农业领域很早就利用土地台账，以土地所有权和所有权转让情况等为主题进行了长短期的分析研究。土地台账是在日本帝国主义土地调查事业过程中制定的，在征收田租的同时，也是证明所有权的基础资料。这些数据在分析殖民地土地所有制结构的过程中被广泛应用。

渔业中农业土地台账对应的资料为渔业权原簿。渔业权原簿是为了经营允许渔业，从市长、郡守或自治区区长处获得渔业执照的权利，即公示渔业权的公簿。

从法律上讲，渔业权作为物权，以遵守土地规定为原则，民法规定包括土地在内的不动产相关权利关系要登记公示，渔业权利关系的公共台账就是渔业权原簿。渔业权原簿自引进至今，与土地台账一样，由各市、郡、区厅、洞、邑、面办事处分散管理。

另一方面，渔业权制度实行初期根据《渔业令》这一近代法赋予了渔业权物权的性质，但法律上没有明确规定是“物权”，据此，对当时没有规定为物权的渔业权，将以登记的大体形式在《官报》的“渔业相关处分事项”栏中公布相关信息。今天的讲座的核心内容是提取官报的渔业权相关行政信息，分析渔业权的颁发、处分、所有权变动等。

简单说明一下主要使用资料《官报》。官报是由政府编印和刊行向社会广泛宣传的事项的一份国家公告机关报。现在官报仍在发行，可以通过“大韩民国电子官报”网站轻松访问。





《朝鲜总督府官报》于1910年8月29日与朝鲜总督府设立同时发行，一直维持到1945年8月30日。在此期间共发行公报10440号，页面数庞大，达140515页。另外，《官报》作为以同样的题名发行时间最长的资料，一目了然地刊登了殖民地政策的活动情况，最重要的是收录了当时的法令等，在数量和质量方面都是优秀的史料。

在此次讲座中，我们将使用《官报》中收录的该数据，掌握殖民地初期全国范围内的免許渔业的实际情况。《官报》与画面所示一样，除了渔场、渔场面积等渔场的视觉信息外，收录了渔业权的所有资料，如渔业种类、所有者、地址、渔场所在地等。

通过利用该资料，在农业领域执行的所有权整顿过程和所有阶层分析等在渔业部门也可以进行，我有名为《殖民地渔业权的所有制形态和特质：以〈官报〉渔业权资料分析为中心》的论文出版。今天的讲座将以该论文为基础进行讨论。

作为参考，《官报》从发行之初，并没有统一收录有关免許渔业权（捕鱼许可证）的信息。直到1914年《官报》才开始连续收录渔业权相关信息，包括渔业部门对免許渔业的处置事项等与免許渔业相关的信息，而对渔业权作为物权法的规定完备则持续收录至1930年4月末为止。该资料是现代渔业权原簿汇总收录的信息，也是本次讲座主要使用的数据。

在分析《官报》中收录的免許渔业的详细处置事项之前，我们先简单了解一下史料的形式。免許渔业（捕鱼许可证）的《官报》收录形式主要分为两种资料。

画面中1914年1月28日《官报》中新版免許事项为新版许可证收录的形式，内容包括许可证编号、渔业种类、渔业渔具名称、渔场位置、捕获物或养殖物种类、捕鱼期、渔业生存期、限制或条件、许可证年月日、捕鱼权持有人的地址和姓名等。

画面中1914年8月25日《官报》中对渔业权的放弃申报是取得捕捞许可证后行政程序的典型形式。这是政府在对渔业权放弃、消灭、更新、取消、转让、流转等行政处分时共同适用的记载形式。内容由许可证编号、渔业种类、渔业渔具名称、渔场位置、捕鱼权持有人、摘要等组成。作为参考，摘要部分记载了渔业权相关的具体行政处分措施。





我将使用资料进行详细说明。您所看到的关于1914年1月28日《官报》中新许可证的详细信息与1914年1月28日《官报》收录的渔业权免許新规有关。简单说明一下,新发放的许可证渔业是第4933号,许可证种类是第2种藻类养殖业,渔场位置是庆尚南道河东郡马田面盐幕洞马岛地先渔场。

作为参考,第二类许可证渔业主要是鱼类、贝类、海藻类养殖渔业所属的许可证。《官报》新免許事项的免許渔业第4933号主要采捕物为海苔,渔业期为当年9月至翌年4月。免許日期为1914年1月15日,大约比《官报》收录日的1月28日提前约2周。即许可证处分日和《官报》收录日之间存在行政处理所需的一定时间差。

捕鱼权所有人的地址是庆尚南道河东郡马田面囉叭洞。捕鱼权所有人除朴敬弼外还有3人,代表人是金守泓。从以上信息可以看出渔场的大致位置,即捕鱼权所有人和渔场地址在同一面,捕鱼权所有人居住在渔场附近。并且可以确定渔业所有权类型是四人共同拥有的形式。

画面中1914年1月28日《官报》新许可证事项中与第4933号左侧并列的渔业权为第4934号,与第4933号一样,属于第2类免許渔业,渔业及渔具名称为藻类养殖业。渔场位置是庆尚南道河东郡马田面盐幕洞小马岛地先渔场,可以看出渔业权第4933号附近有第4934号渔场。

渔业权所有人包括河边樽吉等9人,渔业权的代表是泊佑吉。经确认,河边樽吉的姓氏河边大致可读成Kawabe或Kobe,但资料上用文字留下了名字,因此标音使用汉字音,敬请谅解。他们是福冈县系岛郡加布里村大字岩本159番地,是居住在日本福冈的日本人。资料上没有标明国籍,但通过地址和汉字姓名可以推测出是日本人。

第4933号和第4934号渔业权在同一面是养殖同一采捕物海苔的渔业,是多人共享渔业权的共同渔业,但代表国籍分别为朝鲜人和日本人,渔业存续期限第4933号为10年,第4934号为5年,可见同一性质渔业权被赋予的权利期限不同。朝鲜渔业者被赋予了更长的许可证期限。

当时渔业权免許期限在《渔业令》第6条中规定,其内容为“渔业权的存续期限为自获得许可证之日起10年以内,由朝鲜总督决定。但是,根据渔业权人的申请可以更新,以最多赋予10年后延长的形式。”







《渔业令施行规则》第22条规定:“想要获得渔业权存续期限更新的许可证时,应规定更新期限,并附上许可证,从存续期限结束日起至少3个月前提出申请”,此外,同令中没有另行规定赋予权利期限的明确、具体的行政原则。

下面的画面上的1914年8月25日《官报》渔业权放弃申报是收录了之前授予的渔业权内容在授予渔业许可证后变更的事项的事例。《官报》收录日期为1914年8月25日,是放弃渔业权申报的相关内容。

具体来看,免許渔业第212号为第四类免許渔业,鯿焚寄网渔业权。此处第四类免許渔业,主要是在一定水面,一定渔期内反复建设或铺设渔网后进行的捕捞,主要是通过形成鱼群,根据进行洄游的黄花鱼、沙丁鱼等路径设置渔网来进行捕捞的渔具渔法。

这里的“鯿”是沙丁鱼,焚寄网的“焚”是燃烧的意思,焚寄网是利用刺激光的趋光性和喜欢光的喜明性,点亮火炬引鱼的渔法。渔业所有权的渔场位置是全罗南道丽水郡南面所面岛。渔业权处分的主要内容为:渔业权所有人山口县丰浦郡韩海渔业团,即基于山口县的渔业团体于1914年5月20日申请放弃渔业权。

画面中的免許渔业和其他渔业处置事项收录内容对比表是对新规免許渔业和其他渔业处置事项收录内容的比较,与1914年1月28日《官报》新规免許事项相比,1914年8月25日《官报》放弃渔业权统计包括的信息内容有限。

许可证编号、渔业种类、渔业及渔具名称、渔场位置等在新许可证和渔业处置事项双方中是共同的,但采捕物、渔业存续期、限制条件、许可证年限、渔业权所有人、渔业权所有人地址等未列入渔业处置事项。但是渔业处置事项的具体内容在摘要中记载,通过这些可以获得渔业权的处置明细、行政处置日期等相关的额外信息。

本节课以官报和渔业权原簿的收录形式为例进行了探讨。下一节课,我们将对渔业权原簿收录的行政处置的具体内容和以此为基础得出的渔业权统计进行了解。







## 5-2 渔业权处置事项和渔业权统计

上一节课我们查看了官报和渔业权原簿的收录形式。本节课将收集官报的渔业权处理事项,对导出的渔业权统计进行介绍和分析。

首先来看一下免許渔业处置的种类和主要内容。

《官报》中收录的免許渔业处置事项是根据《渔业令》和《渔业令施行规则》刊登了与免許渔业相关的行政处分事项,综合来看,画面中整理了《免許渔业处置事项和主要内容》。

免許渔业处置事项大致可分为三类。一是许可证新颁发、更新、到期等与渔业权发放和消灭时效有关;二是转让、共有、出借、抵押权设定、继承等与渔业权产权变动有关;三是变更代表、变更许可证事项、许可证更正、延期办理、停业等许可证内容变更等。

具体介绍一下,一是渔业权发放和消灭时效,新发放的渔业权,渔业权所有人主动表明放弃渔业权的意愿,或者渔业权所有人死亡时因没有继承人而权利自然消灭的事项,根据渔业令第10条和第11条被吊销许可证的情况。

《渔业令》第十条规定,渔业令赋予的渔业权,是针对保护水产动植物、实现军事、公益目的或者拖欠渔业税等问题的制裁措施,总督府可以直接限制渔业权,第十一条规定,因行政失误、渔业经营不诚信等原因可吊销许可证渔业,无特殊原因不执行渔村经营管理的情况也包括在内。

接下来,如表所示,渔业权继承及转让等财产权变动相关事项有渔业权转让、继承、共有、出借、抵押、转租、移转等。

渔业权根据《渔业令》第8条规定:“渔业权仅限于继承、转让、共有、抵押或出借的情况,才可以权利为目的。但是除了继承的情况以外,必须得到朝鲜总督的许可”,直到《渔业令》时期为止,只有在总督府的控制下,才拥有可以行使财产权的不完整的物权特性。根据该条款,渔业权与土地形式类似的转让、出借、继承等财产权法律关系成立,渔业权所有人才可以行使财产权。





作为参考,渔业令修订版本的1929年《朝鲜渔业令》第15条明确规定“渔业权是物权,土地相关规定也适用”,渔业权的物权特性被确定为法律,1930年《朝鲜渔业令》于5月1日全面实施,此后官报上就停止收录允许渔业处置事项。

渔业权财产权变动相关事项中,转让、继承、共享、出借、抵押被认为是常识性的法律用语,因此省略追加用语说明。作为参考,渔业权的转移意味着拖欠渔业税时,代替取消渔业权,对竞拍人进行拍卖处理。

同时,还记载了渔业权代表人的选定和变更,《渔业令施行规则》第7条规定,2人以上想要共同获得允许或许可时,选定1人作为代表人,如有变更,必须申报,这点在上述规则中有所反映。

最后,《官报》还收录了对许可证的允许事项变更、更正、再交付、期限延长、停业等。与此相关,《渔业令施行规则》第10条以后有5项根据条款。

《渔业令实施细则》第十条规定,允许事项即渔业种类及名称、渔场位置及区域、采捕物或养殖物种类、捕捞时间等发生变化的情况,第十三条规定,渔业权所有人个人资料发生变化的,应当提出更正申请。第十一条规定了延期开渔、停业的申请,第十四条对许可证遗失时重新交付作出了规定。

渔业权所有人发生上述相关事项时,向行政机关申报并采取措施,其内容已通过《官报》予以公示。

本文对《官报》收录的渔业权原簿进行了分析,分析时间定在制度引入初期的1909年~1921年。1909年是首次引进《渔业法》的时期,1921年是继承《渔业法》的《渔业令》实施第10年。

《渔业令》规定的渔业权的许可证期限最长为10年,在《渔业令》第1年发放的渔业权必须在1921年续期或届满。所以,1921年作为现有允许渔业权第一届完成的时期,具有重要意义。因此,实行近代渔业权制度的1909年~1921年约13年间,作为韩国初期渔业权制度的建立和落实时期,具有重要意义。

另一方面,《官报》中遗漏了1909年至1913年5年间发放的约4900件允许渔业权的信息。这是从1914年以后颁发的允许渔业权相关行政处置内容中获取和补充的。以下做具体说明。





《官报》首次收录渔业免許处置事项是在1914年,是渔业权第4903号。渔业捕捞许可证编号是按顺序分配的,由此可推断官报未收录渔业捕捞许可证处置事项从1909年至1913年底共发放许可证约4900件。同时,这意味着1909年至1913年间发放的约4900份渔业权信息缺失。

因此,关于这一时期遗漏的渔业权的信息,如果发生已发放的渔业免許变动等处置事项,利用官报上现有的免許事项和变动事项收录在摘要部分的特点,进行了数据复原过程。

从1914年8月25日《官报》放弃渔业权的统计中可以确认,免許渔业处置事项中不仅收录了新颁发的,还收录了以前交付的渔业权权利的消灭时效、更新、转让、变更代表人等后续行政措施事项。这对于填补1909年至1913年间发放的渔业权信息空白期非常有用。这是因为1909年至1913年间发放的渔业许可证在10年内到期,权利会消失或更新。

另外,关于权利的消失和更新的信息将被收录在行政处理时期的《官报》中。但是,如果1909年~1913年间发放的渔业权在这一时期因放弃权利或到期而消失,则相关资料很难确定。这一时期无法确定的渔业权约有600件左右,1909年至1921年间发放的渔业权资料恢复率为87.8%。

此外,被推测为1909年~1913年间发放的渔业权在1914年~1921年间,如果受到共有、移转、出借、转让等多次行政处理,原则上应优先恢复最近的记载案件,以此来复原资料。

论文通过《官报》获得的各渔业权信息有8961条。1913年底前被赋予的约4900件渔业权中,有笔者复原的4299件和1914~1921年间官报上定期收录的4662件渔业权颁布信息。

画面中1914年~1921年间《官报》收录的免許渔业处置事项统计表是以1909年~1921年间《官报》收录的渔业权信息为基准整理的。

之前行政处置日和官报收录日之间有时差,因此1915年1月官报收录的事项实际上可以在1914年12月完成行政处理。对此,可以判断以原材料行政处置日为标准比较合适。

1914~1921年间,《官报》收录的免許渔业报道共达11967篇。8年间,平均每年有1496篇与免許渔业相关的文章刊登在《官报》上。从1914年的1637篇开始,到渔业权制度实行第10年的1918年最多收录了2304篇报道。







在11967件免許渔业报道中,占最多数的是关于渔业权的发放和消失时效。共7632件,占文章总数的63.8%。其中,涉及渔业权新许可证的案件有4662件,因放弃渔业权、渔业权所有人死亡、取消渔业权、过期等原因导致渔业权失效的案件2334件。并且渔业权的存续期限更新,渔业权效力延长的有636件。换言之,可以看出过期的捕捞权比权利期限延长多约3.7倍。

其次,渔业权继承及转让等渔业权财产权发生变动的报道有2767件,约占总数的23.1%。其中,渔业权的转让最多,达1668件。最后,在许可证内容中,对变更事项的批准等行政处置有1568件,约占13.1%。

也就是说,对《官报》的许可证处置事项进行审查后,可确认当时与渔业权相关的最频繁发生的事件是关于许可证的发放和消失时效的部门。特别是1914年~1921年的8年间,新颁发渔业权的达到了4662件,这同时反映了当时韩半岛渔场的开发,即渔场的绝对面积扩大和由此导致的渔场许可证扩大的情况。

同时,同期到期的渔业权为2334件,几乎达到了新增渔业权的一半水平。渔业权转让也有1668件,比消失时效的渔业权少。因此,渔场权利的消失比转让更频繁,这可以看作是土地有别的独特特征,即通过特定海域和特定渔具创建渔场来体现所有权。

土地作为一种自然资源,通常范围有限,因此其扩张受到限制。根据《朝鲜总督府统计年报》,全国土地税征收对象的土地面积为1918年的4421千町步,其中稻田和旱田的面积合计为4254千町步。1943年土地面积为4567千町步,稻田和旱田面积为4388千町步,25年间土地面积仅增加146町步,稻田和旱田面积仅增加134町步。

也就是说,土地无论与生产手段是否结合,本身就具有财产价值,因此所有权人自行放弃土地所有权而使土地所有权消灭的事例非常少见,土地所有权的处置主要通过转让交易进行。因此,之前的几项研究还利用殖民地时期土地所有权转移记录作为当时了解农村经济的分析资料。例如,有研究从土地所有者按所有面积的增减中推断出当时农民的经济状况。当然,如果土地所有者增多,人均土地占有规模零散的概率就会提高。

但是,正如在免許渔业处置事项统计表中确认的那样,渔场的所有权由所有权人自行终止其权利,比同期转让交易更加活跃。因为渔场具有与渔具、渔船等生产资料相结合时才产生财产价值的特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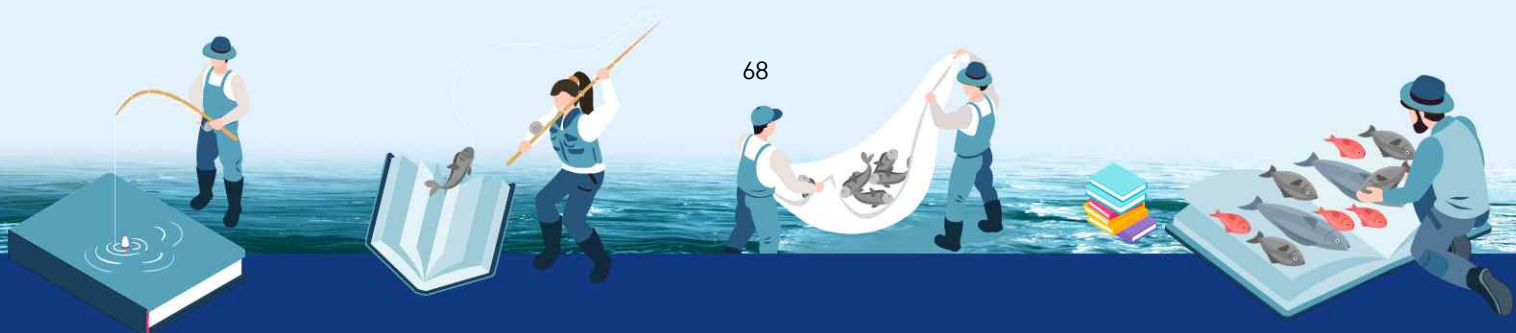




最重要的是，栖息在渔场的水产资源可以自行流动，位于广阔海域的渔场资源含量和经济价值很难被人类直观判断。

而且渔业资源更新率受自然环境变化和上一年渔期捕捞强度的影响，因此产量波动性较大，渔场收益率不确定性很大。因此，关于渔业权到期的记录可以说是确认渔业权的新发放、转让处置和当时渔业经营动向的主要线索。对此，将在讲座5-4免許渔业所有权变动相关的小主题中进行讨论。

本课时收集了官报的渔业权处置事项信息，对渔业权发生、消失、渔业所有权变更、其他渔业权等进行区分和统计进行了了解。下节课我们来看一下免許渔业的所有制类型。



### 5-3 免許渔业权的所有权类型

上一节课我们查看了官报的渔业权统计情况。本节课以免許渔业的所有权类型为主题，将殖民地渔场所有权特征及变动情况分为渔业权新增、消灭、转移三个课题进行说明。在《官报》渔业权免許事项中，只收集渔业权所有人的信息，对其结果进行整理。

第一是免許渔业权的权属类型。首先来看一下新取得渔业权以时间为基准的所有权类型。

渔业权是承认渔场享有排他性所有权的物权，但原则上该物具有公共财产性质。渔业权属类型说明了当时渔业资源利用的惯例和当时渔场所有权的支配体制。例如，对渔业权的所有形式在公有、共有、单独所有权中更接近哪一个作出回答。

《渔业令》下取得捕捞权的渔业者所有权类型主要分为三种形式。第一是采取一人单独持有捕捞权的形式。此时渔业权所有人即是代表。

第二种是共同所有权。共同所有权是指依法拥有2名以上所有主体。作为参考，《渔业令施行规则》第7条规定，2人以上共同想要获得渔业免許或许可时，必须选定其中1人作为代表，在申报或申请许可证时进行记载。

《官报》根据这些规定，渔业权由多人共享时，同时记载了所有权共有者和代表。1914年1月28日《官报》新许可证事项属于这一范畴。例如，免許渔业第4933号是渔业权所有者“朴敬弼等3名，代表金守洪”，共4名共同拥有的形态。

三是集体所有形式。该组织的所有权可再次划分为以洞里地区为基础的多数渔业者或渔业组合，以及“长崎县远洋渔业团（长崎县远洋渔业团）”等日本移民渔业组织、“釜山水产株式会社”等公司形式。以洞里地区为例，像“海仓、木化亭、道里村、长砂、各里渔业者”等，大部分没有明确特定的人被指定为代表。





但也发现渔业权所有人有以“各里采捕业者`代表高柄具“为代表的事例，如许可证渔业第5569号。然而，这只是其中的一部分，并且不是常见的描述形式。在这里，如果以洞里地区为基础的渔业者或渔业组合是渔业权所有者，那么其渔业权的所有类型可以说是共有。

在这里，我来详细说明一下陌生的用语“总有”。首先，总有是一个法律术语。民法上由多数人共同拥有所有权的类型有共有、合有、总有。

总是由不具权利能力的社团所有，管理和处分对象物等权能由共同体所有，股份属于全体成员，但具有成员的股份权处分被封锁的特征。也就是说，可以想成是现代村庄的渔村契。

渔村契成员作为渔村契的一个团体结合在一起，目标对象即村级渔场的管理处分，由渔村契团体自行授权，由大会决议决定。而且，团体的成员通过取得团体资格，在一定范围内对所有物只拥有使用、收益权限的共同所有形式。最重要的是，每个成员不持有股份，也不能对此提出分割请求。

合有是代表性的合作社，所有权分属于多数人，这一点与共有相同，但由于股份为了共同目的被绑定所以不能自由处理股份，因此与共有股份不同。即介于共有和总有之间。共有是物品根据股份由多人所有，成员可以自由处理股份。

1909年~1921年间《官报》中收录的渔业权按前述所有权类型分类整理的结果如下表。最上面为渔业权属类型，分为一人、共同、团体。一人单独所有，共同是指股份分给若干人的共同所有形式。

团体分为以地区为基础的总有、日本移民渔业者团体所有、股份公司形式。日本移民渔业者的所有权形式可以总有、合有、共有，但这里考虑到移民渔业者团体的特殊性，单独进行了区分。

据统计，在渔业权制度实行初期的1909年~1921年间发放的8961件渔业权中，1人单独所有为5304件，占59.2%，2人以上的共同所有为1660件，占18.5%，其余被授予团体的渔业权为1997件，占22.2%。

另外，资料的收集方式根据复原资料和定期收录资料与否分为1909年~1913年和1914年~1921年，1909年~1913年间发放的渔业权中，复原的4299件中，1人单独所有为2501件，占58.2%，2人以上的共同所有为706件，占16.4%，其余授予团体的1092件，占25.4%。







据统计,1914年~1921年间发放的4662件渔业权中,一人单独拥有2803件,占60.2%,两人以上共同拥有954件,占20.5%,其余授予团体的905件,占19.4%。1909年~1913年间和1914年~1921年间,1人所有和共同所有的倾向进一步强化,但这也是初期达到7.3%的日本移民渔业者团体所有权减弱的原因之一。另外,可以确认1914~1921年间以地区为基础的总有权正在强化。

殖民地初期授予的渔业权,其单独所有许可证占一半以上,渔业权由一人所有的倾向明显。而且共同所有也达到了18.5%,共同所有已经通过第二堂课中讲述的朝鲜时代渔场买卖文记中股份买卖事例得到了确认。

像这样,在引进渔业权制度初期,渔业权者中由1人和特定少数共同所有比重高达77.7%,这意味着特定渔场或渔具的权利从以前开始主要由1人和特定少数人独占所有权运营,殖民地渔场的所有权也是在其延长线上发展而来。

接下来,虽然在整个渔业权中所占的比重仅为16.4%,但确认了殖民地时期总有形态的渔业权确实存在,这是非常值得关注的结果。

在第三、第四节课上,我们确认了总有是在实行殖民地渔业权制度法制化的同时,对部分渔场强制执行的事项。特别是1909年至1912年,是相对不受强制条款约束的时期,这一时期当地渔业捕捞者总有权的真实存在可视为源于传统渔村社会。

同时,1909年~1921年间,日本移民渔业团体获得的渔业权为326件,占全体渔业权的3.6%。再按时期分类来看,在引进渔业权制度初期的1909年~1913年间,团体获得的渔业许可证有1092件,其中日本人移居渔业团体获得的有313件,占期间授予的所有渔业权中的7.3%。

然而,在1914年至1921年期间发放的日本移居渔业团体的新许可证只有13份,而且这些许可证是在1914年至1916年期间授予的,属于较早的时期。也就是说,在渔业权制度实行初期,日本人移居渔业的比重相当大,可以推测他们为渔业权制度的落实起到了一定的作用。

早在1908年,移居到朝鲜的日本渔民就达到了1,146户,4,820名。但是随着制度的成熟,在全部渔业权中,日本移民渔业者团体拥有渔业权的比重明显减少。







从图中可以看出,日本移民渔业者在1907年~1911年间呈快速增长趋势,但在1912年达到拐点,1915年~1921年间一直处于停滞状态。也就是说,在1910年代后期,移民渔业者以有利于渔业经营的渔村为中心,聚集在一起,即可以看到移民渔业者围绕成功定居的渔村重新组织起来的情况。

当代表性的渔业定居成功地点是蔚山方鱼津、釜山大边、影岛、统营。1911年方鱼津的日本移民渔业人口只有285名,1921年增加到3073名,影岛从910名增加到4214名,大边从56名增加到114名,统营入佐村,即现在的长承浦入佐村,从400名增加到698名。1921年入佐村所在的统营,人口达到2282人。

作为实例,后来成长为日本首屈一指的水产财阀,林兼商店的经营者兼朝鲜水产业界的中心人物中部长几次郎于1915年将总公司从罗老岛迁至日本水产业者密集的东海方鱼津这一事实也可以确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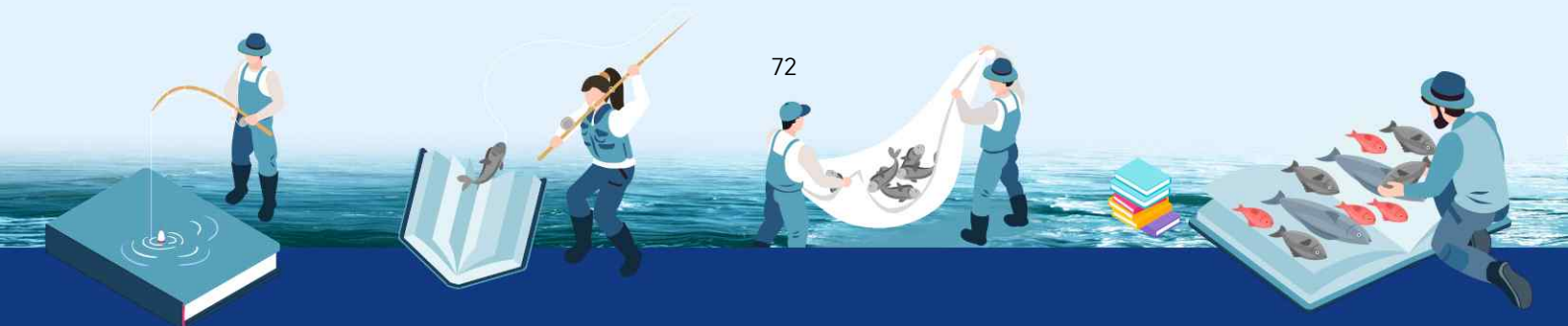
然而,授予日本移民渔业团体渔业权减少并不意味着日本渔业者的减少。初期日本移民以渔村为中心,以集体形态发展的日本渔业者,此后以个人、共同所有权形式或渔业组合获得渔业权,特别是1920年以后以渔业组合为中心的渔业权所有制重组得到确认。这将在今后要观察的渔业权所有变动中将作更详细地讨论。

另一方面,拥有免許渔业权者的朝鲜人和日本人之间的比重是什么样的呢?这是掌握早期渔业权属主导所有权主体的主要线索。通过1人渔业权所有人和共同渔业权代表的国籍比较,可以间接对此进行了解。

在此前观察的1914年1月28日《官报》新许可证事项中,免許渔业第4933号是渔业权所有者“朴敬弼外3名,代表金守洪”,共有4名共同所有,代表是朝鲜人。如上所述,抽取渔业权所有人的姓名并整理渔业权的国籍信息,结果如表所示。

1909~1921年间,1人单独拥有的5304件许可渔业权中,朝鲜人获得3765件占71%,日本人获得1539件占29%。此外,1909年~1921年间以共同所有形式获得的1659件渔业权中,以朝鲜人为代表的渔业权为1173件,占70.7%,以日本人为代表的渔业权为475件,占28.6%。

从整体上看,1人及共同拥有的渔业权维持着朝鲜人和日本人之间7比3的比率。由此可以确认,在1901年日本制定并颁布的《旧渔业法》下,先验渔业权制度的日本移民渔业者以其经验为基础,在殖民地朝鲜从实行渔业权制度初期开始就获得了渔业权,并大力主导了渔业权制度的推行。





实际上,在各种研究中也可以证实当时朝鲜总督府以在日本的先行经验为基础,制定渔业组合规约条例,指导设立启蒙性、官方主导性的渔业组合和制定该规约的事实。同时,这些结果也可以解释为即三成的比重的日本渔民,享有高比例的日本渔业人在殖民地掠夺渔业资源。

据《朝鲜总督府统计年报》显示,1911年从事水产业的渔业户数为87869户,其中日本人为4339户,朝鲜人为83530户,日本人的比重仅为4.94%。与日本人渔业户数相比,日本人所有的渔业权比重较高的实际情况一直持续到1921年。这是日本移民渔业者以近代捕捞技术和资本为基础,大力开拓和渗透殖民地朝鲜渔场的依据。

最后,画面中的表格是将截至年底的实际有效捕捞权定义为“有效渔业权”,对1913年至1921年间各年度有效渔业权按所有权类型进行整理的结果

渔业权虽然是新创设的权利,但法律权利也因期限届满、放弃、死亡、取消等多种条件而丧失。这在所看到的免許渔业处置事项和主要内容中也能得到确认。

从画面表中可知,到1921年,发放渔业权约9600余件,1914年至1921年间,实际有效合法权益的渔业权从1913年底的4298件增至1921年底的6617件。经确认,有效渔业权以年均5.5%的增长率膨胀。

从所有权主体来看,法定权利有效的渔业权,经核实,在1913年至1921年间,人均拥有的渔业权由1913年底的2500件增至1921年底的3774件,共同拥有的渔业权由1913年底的706件增至1921年底的1136件,区域性渔业者拥有的渔业权由1913年底的604件增至1921年底的1596件。

人均拥有渔业权以年均5.3%,共同拥有以年均6.1%速度增长。区域性渔业从业人员拥有的渔业权年均增长12.9%,是所有权类型中增长率最高的。这与之后要观察的渔业权所有变动中渔业团体或渔业组合的所有权增长的结果一致。

另外,日本移民渔业者团体及公司拥有的渔业权分别从1913年末的313件减少到1921年末的49件,从1913年末的175件减少到1921年末的62件,年均减少20.7%和12.3%。从各所有权类型的比重来看,1913年末1人所有的渔业权为2500件,占全体4298件中的58.2%,1921年末为3774件,占全体6617件中的57%。





也就是说,虽然1人所有的渔业权比重在1913年~1921年间有所减少,但平均占有率仍然保持在50%以上。共同拥有所有权的比重同样在1913年末为706件,占16.4%,1921年为1136件,占17.2%,保持相似的水平。

另外,以地区为基础的渔业者或渔业组合拥有的许可证数量从1913年的604件14.1%增加到1921年的1596件24.1%。相反,日本移民渔业者团体和株式会社在1921年的占有率分别为0.7%和0.9%。不是以团体形式,而是共有等取得渔业权的方式正在发生变化。

总之,殖民地时期渔业权处于扩张阶段,年均增长率为5.5%,以一人独有、共同所有、总有等多种形式的存在。土地随着一物一权的近代所有权制度的落实,以稻田和旱田为例,其所有权集中在个人身上,但渔场是一人独有占50%以上,共同拥有股份的占16.4%~17.2%,总有也占14.1%~24.1%这种多元化情况。

自古以来,渔场私占和渔村共同体共同拥有、使用、管理村前渔场的渔业惯例都是共存的情况。同时,通过官报的渔业权统计数据,可以直接确认殖民地时期日本人扩大了渔场所有权的情况。

本节课我们了解了免許渔业的所有权类型。下一节课我们将了解免許渔业的所有权变动情况







## 5-4

### 免許渔业的所有权变动情况和殖民地时期渔业权制度的施行和特性

上一节课我们了解了免許渔业的所有权类型。本节课我们来看看免許渔业的所有权变动情况。然后综合前面的内容,了解一下殖民地渔业权制度实施中体现的所有权特性。

所有权权属变动是指法定权利主体发生变更。渔业权的权属变动由转让、强制移转、共有分割等引起。

第一,转让是指将渔业权转让给他人的行为。渔业权可以股权分割共享,因此,对于全部或部分渔业权来说,都可以进行转让。这也是最常见的所有权变动原因。

第二,作为法律强制措施,有时所有权会被移转。根据《渔业令》第十条第二项规定,渔业权所有人未在规定期限内缴纳渔业税时,总督府可以限制、暂停或者吊销许可证。此时虽然也有渔业权被直接取消的情况,但是也可以通过拍卖移转到他人身上。

第三是渔业权分割所有制,即因共有而发生所有权变动。渔业权可以由多名共享股份,因此所有权人之间的股份转让和放弃股份也会使所有权变动。而且,通过股份分割产生新的所有权共有者,也会带来渔业权的所有变动。

各位所看到的表格是渔业权属变动按类型划分整理的结果。经确认,1914年至1921年间,共发生1755起渔业权所有变动。每年发生160~220起左右的一般所有权变动,1920年增加到405起,大幅增加。

在分析表格之前,为了帮助大家理解各项目,先简单说明一下。制定表格时,首先考虑的是,第一,渔业权所有变动时,买方是其他人还是现有股份共有者,第二,转让对象是渔业权的全部还是其中的一部分。最后还区分了渔业权是被重新分割或因拖欠渔业税而被强制转移的权利。

①的类型为渔业权全部转让给他人的情况。此时,在渔业权流转过程中,渔业权所有类型可能会发生变化。例如,曾由多人共享股份的渔业权转让给一个人时,将转换为单一所有权。







但是, 如果将原个人所有渔业权再次转让给个人, 所有权类型可能不会发生变动。如表所示, 1914年至1921年间, 渔业权全部转让给他人的案例有1514起, 渔业权所有变动中的86%属于这一范畴。

②的类型是, 在渔业权已经由特定多数人共享的情况下, 将渔业权的一部分股份转让给他人。此时, 对于渔业权的一部分股份, 所有权人会发生变动, 但渔业权的所有类型“共有”这一点没有变动。像这样的渔业权的一部分股份转让给他人的案例在1914年~1921年间只有39起, 并没有频繁发生。

其次, 渔业权因共有者之间的转让、放弃等原因, 所有权现状发生变动, 属于表③。③的对应案例是共有者在转让、放弃或死亡丧失自己的股份的过程中, 渔业权集中到其他共有者一人身上, 渔业权的所有类型从共有转变为单人所有权形式的情况。法律术语称之为股权集中。

像这样, 渔业权从共有集中到单人持有股份在1914年~1921年间达到了81起。其中共同所有者转让的有58起, 放弃股份的有23起。④与③一样, 共有者转让并放弃了部分股份, 但与②一样, 只有所有者的成员变更, 所有类型为“共有”这一点没有变动。1914年~1921年间共有67起股份转移, 可确认是有限个案。

除此之外, 渔业权通过共享许可, 可以被重新分割给他人, 表中的第⑤项属于此。1914年至1921年间发生了41起。个人单独所有的渔业权与他人共享的案件有29起, 原共同所有的渔业权中增加共有者的有11起, 日本移居渔业团体拥有的渔业权中增加共有者的有1起。最后, 因拖欠渔业税而被拍卖处理后出售并“移转”所有权的案件在1914年至1921年间共发生13起。

各位看到的图表是将1914年~1921年间渔业权所有形态因转让、移转、共有股份的分割吸收等而变动的事例按类型分类的结果。综合看来, 在转让个人单独取得的渔业权时, 根据收购者的不同, 其所有类型转变为共同所有、一人单独所有、公司所有等形式。

此时, 洞里的渔业从业者取得的渔业权, 即渔业从业者“总有”的渔业权, 随后被转让给“渔业组合”, 实际所有权主体没有改变, 只是涉及了法律所有名称发生了变化, 因此解读时需要注意。表中总结了1914年至1921年间渔业权所有者主体变动情况, 以渔业权发放时间为起点, 所有权形式发生变动的结果如下。





黄色标记部分为颁发之时所有权形式,绿色标记部分为所有权变化的结果值。例如,98起标有红圈的渔业权,是指发证时渔业权被分割成若干名渔业权所有人共有的形式,随后部分渔业权所有人将股权转让给第三方,所有者组成有所变动,但所有权形式仍为共有形式。

用紫色圆圈标记的250起同样是渔业权发放时多人共享的渔业权,意味着之后渔业权由1人单独所有。第一种可能性是共同拥有权利的渔业权所有人放弃或转让共有股份时,其转让对象不是第三者,而是共有者中的1人,即渔业权共有股份合并到单人的股份集中事例。第二种可能性是指多人共有的渔业权全部统一转让给另一个人,最终由单人所有的情况。

如表所示,在1914年至1921年间,发生部分或全部免許渔业权所有变动的案例有1755起。其中,发放许可证时由一人所有的渔业权所有主体变更共有1007起,占57.4%,共同所有渔业权变更的有393起,占22.4%,地区渔业者总有渔业权变更的占162起,占9.2%,日本移民渔业者团体所有渔业权变更的有96起,占5.5%,公司所有渔业权变更的有97起,占5.5%。

从各项来看,现有的1人所有渔业权再次转让给个人的有652件,占37.2%,所占比重最高。接着,共同所有的渔业权单独转让给1人的有250件占14.2%,1人所有的渔业权变更为组合所有的有212件占12.1%,以洞里地区为基础的渔业者的总有渔业权转让给渔业组合的有156件占8.9%。

结果可以概括为,1914年~1921年间,由于转让等免許渔业权的所有变动,1人单独所有从1007件减少到985件,共同所有从393件减少到248件,而渔业团体所有从258件增加到415件。公司所有也从97件增加到了107件。

从前面渔业许可证发放时点的渔业权所有人的所有类型来看,已经是渔业权所有人的所有类型中单人所有,股份共有在1909-1921年间为77.7%,处于绝对高位,因此该渔业权按比例进行转让交易及所有权变动件数较多是理所当然的结果。

相反,在所有权类型中,变更为组合·渔业者的415件占23.6%,即以地区洞里为基础的多数渔业者总有的免許渔业权正在以组合所有权的形式重组,这一点值得注意。





各位所看到的图表是1914年~1921年间,根据所有权变动,组合拥有的免許渔业权现状,按地区、组合分类整理而成。在这一分析时期,渔业权所有人变更为组合·渔业者共有415件。其中409件是渔业组合,6件是地区渔业者。

以渔业组合转让的409件渔业权按地区分类,庆尚南道11处、全罗南道7处、平安北道6处、咸镜北道5处、江原道、庆尚北道、全罗北道、忠清南道、平安南道、咸镜南道1处等,可以确认是分散在全国各地的渔业组合,渔业权的所有转移。

以渔业组合转让的渔业权规模为庆尚南道288件、庆尚北道37件、平安北道30件、全罗南道25件、咸镜北道15件,其他地区不到10件。主要集中在庆尚北道。同时,渔业组合中的广岛鳬网渔业组合、松真渔业组合、巨文岛渔业组合等是获得日本渔业者所有渔业权转让的渔业组合,被认为是日本人主导的渔业组合。

此外,转让给渔业组合的409件渔业权中,包括原一人单独持有许可证转让给组合的有212件。其中203件是日本人个人所有,转让给位于庆南统营的广岛鳬网渔业组合的第3种免許渔业权。表中向渔业组合转让的渔业权激增也是广岛鳬网渔业组合成立的原因。

另外,由1名朝鲜人单独所有者转让给渔业组合的只有9件。也就是说,1人单独拥有的渔业权变更为组合所有的事例大致不是由朝鲜人组成的渔业组合成立的结果,而是由日本渔业者造成的,推测原来就由日本人移居渔民所有。但是,除此之外的以前由渔业者共有、总有的渔业权转让给渔业组合的情况是,渔业组合虽然规模小,但在全国范围内却不断蓬勃兴盛。

最后,我们来看一下殖民地时期渔业权制度的实行中体现的所有权的特征。殖民地时期渔业权制度是将渔业权认定为独立于土地的财产权,保障法律所有权,从朝鲜时代开始,被特定少数人抢占的渔场所有权在渔业权制度下,其连续性得到保障和维持。

但是,在已有的两班、衙门等渔村社会支配下,与所有权无关,习惯性地从资源管理概念中总结出来的村庄共同采藻、捕贝渔场,否定了上级对所有权的支配,只承认由村成员的总有权,因此以地区为基础的渔业者成为新的所有权主体。虽然法律上不能侵犯渔业权的私人所有权,但是制度上禁止对属于总有对象的渔场进行个人所有。殖民地时期渔业许可证的发放以极快的速度扩张,尤其是总有形态渔业权的增长速度最快。总有渔业权的主体可以看作是传统村落集体捕捞者和日本移民渔业者组成的渔业组合的两大支柱。







此次讲座从记载包含殖民地时期渔业权的颁发和消灭时效、所有权变动的《官报》的免許渔业处置事项中对《渔业法》和《渔业令》引进初期渔业权制度的实际情况进行分析,并以此来观察殖民地时期渔业权法所有权确立及其实际情况。

通过此次讲座,从殖民地时期渔业权处置的主要内容开始,确认了单人、共同、总有等多种渔业权所有主体和渔业权个人所有集中等,确认了从朝鲜时期延续下来的特质,确立了渔业权作为独立权利,对总有渔业权作出了制度性创造和强化,区分了传统渔村社会和渔业组合的渔业权总有的主体二分化,最后确认了渔业权持续增长和扩大的情况等。也就是说,对于殖民地时期渔业权制度,我认为可以有助于填补这段时间的研究空白,提高对这段时期的理解。

至此,以“通过渔业法看韩国水产业的发展史”为主题进行的5次讲座已经结束。我们对讲义的目标,即研究韩国水产资源作为公共财产的所有权形成,以近代形态法制化的一系列历史过程进行了确认。

下面第六堂课将以水产业的发展和韩国经济为主题进行。作为最后一次讲座,我认为把目前韩国水产业作为主题包含在讲座中是有意义的,因此将从GDP、产量、进出口等经济统计指标来考察水产业的意义。第五堂课就此结束。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어업에서 농업의 토지대장에 대응되는 자료는 ( )이다.

10분

**정답**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해설** 어업에서 농업의 토지대장에 대응되는 자료는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입니다. 어업권원부는 면허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권리인 어업권의 공시(公示)를 위한 공부(公簿)입니다.

### 02 『관보』와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분

- ① 관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이다.
- ② 『조선총독부관보』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설치와 동시에 발행되어 1945년 8월30일까지 유지되었다.
- ③ 『관보』는 발행 초부터 마지막발행일까지 면허어업권에 대한 정보가 일관되게 수록되었다.
- ④ 『관보』에는 어장도, 어장면적 등 어장의 시각적 정보를 제외한 어업권에 대한 자료(어업종류, 소유권자, 주소, 어장 소재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정답** ③

**해설** 『관보』에는 발행 초부터 면허어업권에 대한 정보가 일관되게 수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업권 관련 정보는 1914년에 이르러서야 『관보』의 어업 부문에 면허어업처분사항 등 면허어업과 관련된 정보가 연속적으로 수록되었으며, 어업권에 대한 물권적 법 규정이 완비된 1930년 4월 말까지 수록을 지속하였습니다.





### 03 『관보』의 어업권처분사항 관련하여 잘못된 것은?

5분

- ① 『관보』에 어업면허 처분사항이 최초로 수록된 것은 1914년으로 어업권 제 4903호이다.
- ② 면허어업기사 11,967건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어업권의 발급과 소멸에 관한 것이다.
- ③ 1914년~1921년간 어업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권리 기간이 연장된 것보다 소멸한 어업권이 약 3배 이상 많다
- ④ 1914년~1921년간 소멸한 어업권은 1,000여건이며, 어업권 양도는 1,600여건으로 양도 건수가 더 많다.

정답 ④

**해설** 1914년~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면허어업 기사는 총 11,967건입니다. 이 자료에서 권리가 소멸한 어업권은 2,334건이며, 어업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어업권의 효력이 연장된 것은 636건, 어업권 양도는 1,668건으로 갱신과 양도건수는 소멸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토지와 구분되는, 즉 특정 바다와 특정 어구를 통해 어장이 창설되는 어장 소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04 ( )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물권을 소유한 것으로, 관련 관리, 처분 등의 권능은 공동체에 속하고, 지분은 구성원에게 속하여, 구성원의 지분권 처분이 봉쇄되는 특징을 갖는다. 현대의 마을 어촌계가 대표적 예이다.

10분

정답 총유(總有)

**해설** 민법상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은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가 있습니다.





**05** 1909년~1921년간 면허어업권자의 조선·일본인 간 비중을 추정해 보면, 1인 및 공동소유 어업권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 6대 4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O/X)  
10분

정답 X

**해설** 1909년~1921년간 면허어업권은 1인 단독 소유 5,304건 중 조선인이 3,765건 71%, 일본인이 1,539건 2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1909년~1921년간 공동소유 형태로 취득한 1,659건의 어업권 가운데, 조선인을 대표자로 하는 어업권은 1,173건으로 70.7%, 일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어업권은 475건 28.6%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 및 공동소유 어업권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 7대 3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 주제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난 면허어업권 소유의 특질을 개인, 공유, 총유 등 소유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후 면허어업권의 소유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동하였는지 면허어업권 통계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60분)

## 참고

강의에서는 1914년~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면허어업처분사항에 대한 통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제시된 여러 표의 수치와 그 의미를 ① 식민지기 1인·공동·총유 등 다양한 어업권 소유 주체 확인, ② 어업권의 개인소유 집중, ③ 조선으로부터의 연속적 특질 유지, ④ 총유어업권의 제도적 창출과 강화, ⑤ 어업권의 지속적 성장과 확대 양상 등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송경은(2015), 식민지기 어업권의 소유형태와 특징 : 『관보』 어업권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59호, 2015년 12월
- 전재경·이종길(1997),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한국법제연구원.

“제4장 미역발 분쟁실태”를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코노 노부카즈(2011), 「일제하 中部幾次郎의 林兼商店 경영과 ‘水産財閥’로의 성장」, 『동방학지』153, 277~328.
- 박호원·김수희 역(2019), 요시다 게이치(吉田敬一), 조선수산개발사(朝鮮水産開發史), 민속원

“제7장 자유발전시대의 어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